

구속사 뿐 아니라 세상 모든 역사도 주장하는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패역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이 기름 뿜음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상 16장 13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8월 8일 (토) 제 1545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대통령은 젊고 유능한 신앙의 사람으로!

월드, '2016 공화당 본선후보' 복음주의 진영 리더 100명 설문조사

'2016 미국 대선 후보들에 대한 선호도와 신뢰도를 조사한 여론 조사 결과들이 연일 발표되고 있다. 민주당은 여전히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독주하고 있지만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고,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는 뚜렷하게 앞서는 후보가 없다는 점이 각종 여론 조사의 공통된 결과다.

CNN방송과 ORC인터내셔널이 최근 공동으로 벌인 전화설문조사 결과에서, 민주당은 역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독주를 막을 후보가 아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클린턴 후보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정적하지 않다는 응답이 49%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57%로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한편 공화당의 경우 클린턴 후보처럼 독주가 예상되는 인물이 아직 없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우선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14%로 지지도 면에서 가장 앞서고 있고, 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뒤를 이

어 13%,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와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가 그 뒤를 이어 10%로 나타났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랜드 폴 의원이 8% 등 그 외의 후보들의 지지도는 한자리 수에 그쳤다. 따라서 설문 조사에 참여한 절반에 이르는 공화당원들은 빨리 선두주자가 정해져서 후보들 간의 혼선이 마무리될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복음주의 진영에서 청빙과 같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월드'지는 공화당 예비 주자들 간의 혼선을 방지하고, 복음주의 진영에서 믿음만한 후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 7월 말 설문 조사를 벌였다. 바로 복음주의 진영에서 리더로 인정받고 있는 100명에게, 설문을 통한 선호도와 대선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물었다(Whom do evangelical insiders favor in 2016?: CAMPAIGN 2016, Marco Rubio leads, former favorites flop in 2016 questionnaire responses).

되고 있다. 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인 빌 슈나이더는 '도널드 트럼프: 저항자들의 리더'라는 블로그에서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이 "새로운 미국의 상승 세력에 저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이민자, 여성 노동자, 편모, 젊은이, 소수 인종, 소수 종교자 등의 소외층이 모여 이젠 주축을 이루고 있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적대심이 보수 세력의 저변에 깔려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미국(Old America)"이 공격당하고 있다고 믿는 "매우 보수적인 당원, 티파티 세력,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 공화당 지지자들"은 예전의 미국을 갈망하고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것에 저항하고 있는데, 그런 욕구를 트럼프는 반 이민, 반 동성애, 반 개혁 그리고 반 오바마 발언으로 충족시키고 있다. 결국 오늘의 공화당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은 '저항'이라는 것이 빌 슈나이더 교수의 분석이다.

다시 말해서, 오바마 의료 정책(오바마 케어)에 대한 저항, 이민정책 개혁에 대한 저항, 동성 혼인에 대한 저항, 과격 이슬람교에 대한 저항, 또 오바마가 국회에서 바라는 모든 것에 대한 저항 때문에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트럼프를 본선에서 힐러리와 맞서 싸울 대항마로는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75%).

복음주의 진영에서 선정한 '파이널 4' 다음으로는 테드 크루즈 후보가 우선 순위도와 2차 순위도에서 각각 25%의 지지를 받았지만, 클린턴 후보와 실제 대선에서 경쟁하게 되는 경우 밀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밀렸다.

밀레니엄세대, 보기와 다르다!

뉴스위크, 미국 18-34세, 월소득 4분의 1 저축 대비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면 흔히 게으르고 버릇없으며 특권을 누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비즈니스 네트워크 사이트 링크드인과 마케팅업체 입소가 최근 공동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장래에 대비하고 금융위기를 예방하는 사모방식'도 가졌다. 그 조사에서 '부유한' 밀레니엄 세대는 매달 최소한 월급의 4분의1을 저축한다. 그들 중 근년의 대침체 같은 상황이 오리라 생각하는 비율도 59%나 됐다(MILLENNIALS AND MONEY: Young people save paychecks and predict financial crisis, survey finds).

제2 금융위기 예감...X세대보다 더 저축 72% "현재 희생이 미래 보상 가져온다"

지금 당장의 희생이 미래에 보상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는 밀레니엄 세대가 X세대보다 많았다. 특히 부유한 밀레니엄 세대의 72%는 지금의 자제 즉 절제와 저금이 나중에 혜택으로 돌아온다고 믿는다. 그런 생각에서 부유한 밀레니엄 세대는 X세대보다 더 많이 저축한다(중간 값으로 볼 때 밀레니엄 세대의 경우 매월 소득의 24%, X세대는 18%).

링크드인의 금융서비스 책임자 메나카 티라이아팔람은 "밀레니엄 세대는 부모와 조부모가 금융위기에 시달리는 것을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로 밀레니엄 세대는 X세대보다 부채가 더 많다. 대부분은 신용카드 사용과 학자금 융자다. 밀레니엄 세대의 평균 부채는 4만7689달러이며 나이가 들수록 늘어났다 CNBC가 보도했다. 링크드인 조사에 따르면 부유한 밀레니엄 세대는 비슷한 재정 수준의 X세대보다 사업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7배였다.

동시에 밀레니엄 세대는 X세대보다 미래의 지속적 성장을 확신한다고 말할 가능성이 더 컸다. 링크드인 조사에 따르면 부유한 밀레니엄 세대의 거의 절반은 미래 경제에 낙관적이었다(44%가 아메리칸 드림이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4월 10개국의 밀레니엄 세대와 X세대 9,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보고서는 미국인 1,507명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다. 밀레니엄 세대는 1981-1997년, X세대는 1966-1980년 출생으로 정의했다. 여기서 '부유하다'는 부동산을 포함한 최소한 10만 달러의 투자가능 자산을 가졌다는 의미다.

힐러리 대항마...마르크 루비오 1순위

이번 '월드'지의 설문 조사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다.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성급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TV 토론회를 개최하는 폭스 뉴스와 CNN 방송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16명의 후보군 중 상위 10명의 후보만 TV 토론회에 참석시키겠다고 발표했기에, 월드 지의 설문은 한마디로 복음주의 진영의 속내가 담겨져 있다.

설문의 결과는 한마디로 복음주의적 가치를 지닌 젊은 실천하는 정치인을 원하고 있다. 즉 계속해서 탄탄한 지지를 받아온 마르크 루비오 후보가 1, 2차 우선 순위에서 거의 40%에 이르는 지지를 받고 있고, 잭 부시 전 주지사(32%) 그리고 스콧 워커 주지사(28%)가 그 뒤를 빼앗겨 뒤쫓고 있는 형국이다. 이례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역



2016 공화당 대선후보가 10명이 넘는 난립상태가 되자 복음주의 진영은 힐러리에 맞설 후보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시 반쪽 지지(4%)를 받고 있다. 현재 트럼프의 주장은 터무니없

지만, 자기들의 미국이 사라지고 있다고 믿는 이들에게는 큰 매력

(9면으로 계속)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온라인(Online) 기독교상담학과

- 1. 학사: 성서학(BABS), 기독교상담학(BACC)
- 2. 석사: 목회학(M.Div), 신학(MAT), 기독교상담학(MACC)
- 3. 박사: 목회학(D.Min)
- 4. 세계 모든 곳에서 통신과 온라인으로 학위 취득 가능
- 5. ATS 인가 학위로 미국 주류 기독교 대학과 학점 인정 및 편입학
- 6. 연방정부 학비 지원, 선교사 장학금, 목회자 장학금, 부부 장학금

미국 대학교 인증기관
ABHE, ABHE, ATS, TRACS
www.wmu.edu /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크리스천의 여행은 순례 여행이다!

2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7면



박시경 박사
(그레이스신학대학원)

8면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
염예선 박사

16면

KIMNET 세계선교동역네트워크
"열방을 주님께!" (마 28:19) "Nations for our Lord Jesus"

열방을 향한 선교전략과 기도 성회

등록 문의: Tel: (314) 368-2832, email: LHS5678@gmail.com
to Register: www.KIMNET.org/Registration_Form

일정: 2015년 10월 28일(수)저녁 ~ 30일(금)저녁
장소: 은혜한인교회 (담당: 한기홍 목사)
(비행편: Los Angeles International Airport (LAX) 국제공항, 비행기표를 구입하신 후 항공사(명도)를 검색하여 주시면 항공권 드립니다.)
주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314)368-2832 | 현석목사 LHS5678@gmail.com
주최: KIMNET, 주관: 은혜한인교회 www.gracemi.com

선교대전 저녁 강사: 이용희 교수, 김용의 선교사

주제강의:
선교에 있어 성령과 기도 (발제: 한기홍 목사, 응답: 박기호 목사)
차세대 선교 현황과 전략 (발제: 정민용 목사, 응답: Jason Noh 목사)
'기도는 선교다' (이완상 목사)
디아스포라 선교 현황과 전략 (발제: 박희민 목사, 응답: 김성진 목사)
이슬람교 현황과 전략 (발제: 최바울 선교사, 응답: 이태환 선교사)
전통 선교 현황과 전략 (발제: 홍성기 목사, 응답: 전요한 박사)
미전도 민족 선교현황과 전략 (홍은선 선교사)
4/14 Window 선교 현황과 전략 (허연행 목사)
북한선교 현황과 전략 (김요한 목사)
JAARS 선교 현황과 전략 (Woody McLendon)

I. Workshop A
1. 교회선교 교육 (방대식 선교사)
2. EM선교 (주용성 목사)
3. 미전도민족사역 (홍은선 목사)
4. 지도력개발 (백희민 목사)
5. 선교지교회개척 (이은우 목사)
6. 미디어 선교 (이종문 목사)
7. 디아스포라선교 (송병기 목사)
8. 청년 지도자 양성 사역 (이아람 선교사)
9. 교육선교 (송재원 목사)
10. 세계전도사역 (백요한 선교사)
11. 선교사지원사역 (황선규 목사)
12. 중보기도 사역 (김태진 장로)

II. Workshop B
1. 이슬람권 미전도민족 선교현황과 선교전략 (이태환 선교사)
2. 힌두교권 미전도민족 선교현황과 선교전략 (이은우 선교사)
3. 불교권 미전도민족 선교현황과 선교전략 (최재영 선교사)
4. 동양 선교현황과 선교전략 (김요한 목사)
5. 디아스포라 선교현황과 선교전략 (박상욱 선교사)
6. 차세대 선교현황과 선교전략 (정민용 목사)
7. 4/14 Window 선교현황과 선교전략 (허연행 목사)
8. 선교역사적으로 본 선교전략 (나성균 목사)
9. 평신도 선교현황과 선교전략 (이상진 장로)
10. 단기 선교현황과 선교전략 (김정환 선교사)
11. 이방인의 흥만 수와 온 이스라엘의 회복 (양태일 목사)
12. 성경번역을 통한 선교전략 (정봉수 선교사)

각 선교단체 사역 보고
GP USA: 김승봉 선교사 KAFHI: 정순호 목사
OM-KAM: 김일권 선교사 SON Ministry: 김정환 선교사
남미선교연구원: 김정일 선교사

등록비: 1차(9월10까지 \$70, 호텔포함 \$250), 2차(9월30까지 \$100, 호텔포함 \$300)
부스 신청: 1차 (\$150, \$300 1인 부스당당자 호텔, 식사포함) 2차 (\$200, \$350 호텔)



시론

순교 증후군!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오늘날은 설교의 홍수시대입니다. 우리들은 신문, 잡지, TV,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등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유명한 설교자의 모든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저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목회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선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메시지 목사"입니다. 그러나 청중들이 듣고 싶어 하는 내용들, 사람들의 마음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만을 전하려고 한다면 "마사지 목사"입니다. 성도들도 오늘날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마사지 성도"입니다. 그러나 비록 나를 찌르고 흔드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갈망한다면 "메시지 성도"입니다(히4:12). 교회는 마사지 같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도 아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메시지, 말씀 그 자체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는 "마사지 교회"가 아니라 "메시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사지"가 아닌 "메시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주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메시지"에는 항상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역사요 기독교는 이런 성도들의 증언입니다. 오늘날까지 제작된 영화 가운데 명작중의 명작이라고 불리우는 영화는 단연 "벤허"일 것입니다. 하이라이프인 15분간의 전자 경주신을 위해 1만5천명이 4개월간 연습했다는 전설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벤허를 쓴 작가는 미국 남부에 사는 "윌레스"라는 장군이자 수필가였습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당대 유명한 무신론자 잉거솔(Robert G. Ingersoll)을 만났는데 그는 윌레스에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다 거짓말이고 쓸데없는 것이며, 기독교는 믿을 수 없는 거짓 종교임을 증명하는 책을 쓰면 대단한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이에 미혹된 윌레스는 성경의 허구성을 철저히 파헤쳐서 성경은 허무맹랑한 거짓임을 밝히고, 예수를 믿는 이 불쌍한 인류를 신에게서 해방시키기로 결심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가장 먼저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자세히 읽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성경 속에서 거짓을 발견하기는커녕, 도리어 성경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가 예수를 부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의 양심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은 진리야"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윌레스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습니다. 마침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성경의 음성이, 메시지가 윌레스를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들었던 펜을 쥐고 만인의 심금을 울리며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한 불후의 명작 "벤허"를 썼습니다.

"사건"입니다. 윌레스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전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성경이 윌레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벤허는 윌레스가 말씀을 보고, 읽고, 듣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 역사"입니다. 이 "말씀과 메시지" 그리고 "사건과 역사"는 성경속의 인물들처럼 우리에게 과거에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나고 있고, 내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순교 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나를 마구잡이로 흔들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말씀, 메시지"를 막는 것은 다름 아닌 "나"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메시지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내가 막고 있다는 겁니다. 왜? "메시지"가 내 인생 안에 들어오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말씀이, 메시지가 내 존재를 진동시키고, 내 영혼을 뒤흔들어 놓으면,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말씀,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봉사, 헌신, 더 많은 헌금, 더 많은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테니까, 이게 두려워 "메시지"가 나를 뒤흔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순교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말씀은 힘이 있는데 마귀에게 속아 내가 주의 말씀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신앙생활 정말 잘 할까봐 겁먹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한 여름이 뜨겁습니다. 이번 한여름에 우리 심령과 영혼도 엠마오로 가던 2제자처럼 진정한 메시지 만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귀한 은혜가 가득 하소서-오늘 글은 얼마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메시지냐? 마사지냐?"를 재료를 삼았습니다.

크리스천의 여행은 순례 여행이다!

CT, 성지순례 역사와 함께 크리스천들이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 소개

성지순례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일하심의 자취가 남겨진 곳 그리고 그의 백성들 곧 신앙선배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를 경험한 그 땅과 길을 밟으며 연구하고 예배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성숙과 주께 대한 사랑의 깊이를 더해 가기 위한 거룩한 여행'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성지순례를 준비 없이 떠난 사람들과 충분히 준비하고 다녀온 사람들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말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그만큼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성지가 아니라더라도 떠나는 여행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고, 돌아와서 일상에 적용한다면, 여행만큼 좋은 영적 유익이 될 수 있다고, 크리스처너티투데이(CT)는 제안한다(He Talked to Us on the Road: The surprising rewards of Christian travel).

"일체의 순례를 폐지해야 한다." 마르틴 루터는 1520년 이렇게 썼다. "순례에는 좋은 점도 없고, 순례를 하라는 계명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능멸하고 죄를 저지르는 핑계거리만 잔뜩 있기 때문이다. 이런 순례는 거지들이 악행을 술하게 저지를 구실이 되고 있다."

그런데 루터가 남긴 순례에 대한 이 같은 경고를, 정작 비텐베르크에서 루터의 고향인 만스펠트까지 274km에 이르는 여행 루터인 '루터의 길'(Luther Trail)을 홍보하는 정부나 민간이 발간하는 자료들-바르트부르크 성에



그레이엄 도서관에서 미국의 대표 복음주의 목회자인 그레이엄 목사의 삶을 보여주는 전시물들을 만져보고, 그가 성장한 실제(그러나 통째로 장소를 옮긴) 농장 가옥에서 그레이엄 가족의 타자기와 성경책을 관람한다. 그리고 기도 정원의 오솔길을 지나 루스 벨 그레이엄 여사의 무덤과 훗날 그레이엄 목사가 묻힐 장소에 이른다. 방문자들은, 중세 성자의 무덤에서 흔히 그랬듯이, 옷자락을 무덤 안으로 내려뜨리는 행동은 할 수 없지만 공식 기념품 정도는 '루스의 오두막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순례의 개념을, 루터가 그토록 반대한 공로주의에서 구분해내는데 수세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신교인들도 순례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개신교인들은 자신들의 여행을 순례라고 부르지는 않거나 순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여행중 주님의 말씀 체험하고 돌아와 일상에 적용

두 제자의 엠마오 여행에서 부활의 실제 체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 존재하면서 역사성 넘어

서 루터가 남긴 잉크 얼룩을 보라! 루터가 거의 죽일 뻔했던 운티스도르프의 칼날 같은 바람을 느껴보라! 에르푸르트에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보통스회의에서 자신의 신념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황제 앞에서 밝히면서 루터가 한 말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문구가 쓰인 양말 판매!-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걸 보면 루터는 아연실색할 겁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루터 연구가인 그레이엄 톰린(Graham Tomlin)은 말했다. "심지어 루터는 사람들이 '루터교도'(Lutheran)라고 말하는 것조차 아주 싫어했지요. 그렇지만 루터의 족적을 따라가며 복음을 재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려면 '루터의 길'만큼은 그렇게 꺼려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루터도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재발견하게 됐는지는 즐겨 말했다고 톰린은 덧붙였다.

관광 상품으로 포장한 '루터의 길'-그리고 이와 유사한 존 칼빈의 스위스나 존 녹스의 스코틀랜드 같은 종교개혁 순례 루트들은 무시할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가장 개혁주의적인 복음주의자들도 영적 여행에 관해 터놓고 이야기할 정도다. 실은, 개신교인들도 순례라는 말을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대개는 존 번연의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이나 옛 복음성가, "나는 순례자"(I am a Pilgrim)에서처럼, 거의 언제나 은유로만 사용했다.

그러나 남침례신학교의 앨버트 몰러(Al Mohler) 총장은 순례라는 말을 은유로 쓰지 않는다. 그는 실제로 뉴저지 프린스턴에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무덤까지 순례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했다.

불과 10년 전, 사람들은 "미국에서 하나님 찾기"를 주제로 한 종교간 대화 서적들과 나란히 진열돼있는 여행과 동양 종교를 결합한 책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복음주의의 순례 여행의 특색을 뚜렷이 부각한 책은 내놓은 출판사라고는 IVP나 라이온 허드슨(Lion Hudson) 등 몇 안 될 만큼, 복음주의

진영의 분위기는 사뭇했다. 그러나 이제는 스코틀랜드 아이오나(Iona), 프랑스 떼제(Taizé) 등 개신교 역사상 중요한 장소로 떠나는 여행이 붐을 일으키고 있다. 유럽의 복음주의자들, 특히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고국에서 순례 여행의 인기가 점차 높아가는 것을 선교 기회이자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갈망이 드러난 신호로 보고 있다.

복음주의자들이 1700년 넘은 순례 전통을 발굴하기 시작한 분명한 신호는 노스캐롤라이나 샬롯(Charlotte)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곳을 찾는 순례자들은 빌리

말입니다." 톰린의 말이다. 그는 2004년 개신교인들이 떠날 수 있는 건강한 순례 여행에 관한 책을 냈다. "대체로 개신교인들은 영적인 차원을 겸비한 권력이나 휴가를 선호합니다."

순례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오랜 반감은 순례 행위 자체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과도한 순례 여행과 왜곡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 때문이었다. 루터도 이렇게 썼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순례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무분별하고 지각없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The Korean Christian Press ■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665-0009 (대 표) (323) 665-9025 (광고국)
Fax: (323) 665-0056 (편집국) (323) 665-0046 (광고국)
E-mail: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 표)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 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5년 가을학기 학생모집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USED) OPE ID: O3528300,
www.ope.ed.gov/accredit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 in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신학, 기독교교육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 in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문의: 전화 (636) 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 327-4645 / Fax: (636) 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 730-4750 / Fax: (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여행지보다 여행길에서 만난 '사람' 이 더 중요

CT, 성지순례 역사와 함께 크리스천들이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 소개

(2면에서 계속)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든 생각을 다잡아 주께 복종할" 방법을 찾는 이 여행의 시대에, 크리스천답게 여행하는 의미를 새로이 물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우리가 여행을 더 해야 할지, 영적 장소를 더 자주 찾아가야 할지, 이런 것이 아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주, 또 아주 많은 곳을 여행하고 있다.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왜 우리는 여행을 하는 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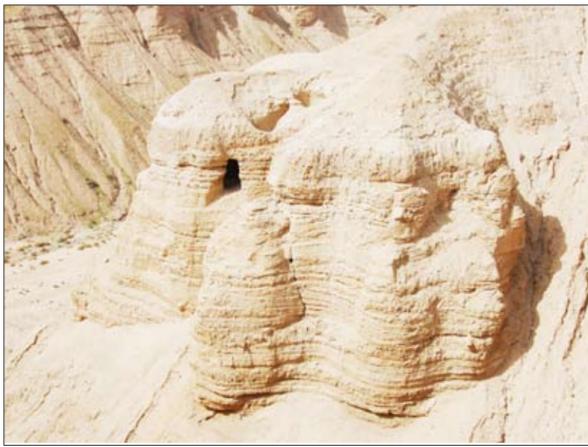
답은 아주 간단하다. 우리는 처음에는 떠나기 위해 여행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돌아오기 위해 여행한다.

순례는 전통적으로 특정 장소, 곧 고유의 성스러운 영적 의미를 지닌 장소로 떠나는 것을 말한다. 더러는 성지 자체는 평가절하하고 그 여정에만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목

이나 하나님께 한 맹세 운운하는 것보다 "도시와 나라를 보고 싶어 하는 호기심"에서 순례를 떠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썼다. 그러나 중세시대 최악의 여행자는 도피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부랑자, 만년

투어의 창시자인 토마스 쿡(Thomas Cook)에 의해 1800년대 말에 개신교인들 사이에서 성지 이스라엘 방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불붙었다.

그렇지만 1800년대를 통틀어서



성지순례의 유익, 충분히 준비한 사람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 여행 끝날 때까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

적자가 아니라 여행 자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물론 목적지와 여정 둘 다 중요하다. 그러나 순례는 이 둘 어느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순례는 기원, 곧 출발에 관한 것이다. 고대와 중세에 순례의 중심을 이룬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창 12:1). 이처럼 구약에 반복하여 등장하는 서사는 떠남(exodus)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당신을 거듭 밝히셨다. 반면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분이 라고는 좀처럼 말씀하지 않으셨다.

마찬가지로, 중세 순례자들도 어디론가 가고 싶다는 소망보다는 어떤 장소를 떠나고 싶다는 소망에서 순례의 동기를 얻곤 했다. "순례는 탈출을 뜻한다." 영국의 역사학자 조나단 심션(Jonathan Sumption)은 '순례의 시대'(The Age of Pilgrimage)에서 이렇게 말했다. 또한 덧붙여 17세기 어느 작가는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장소를 보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다는 호기심, 주인에 대한 하인의 조바심, 부모에 대한 어린 아이의 조바심, 남편에 대한 아내의 조바심"에 자극 받아 순례를 떠난다고 불평한 내용을 소개했다.

루터는 관광을 목적으로 한 순례자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선행

여행자, 평생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논쟁이 일어난다. 길 위에서, 그리고 여행 책자와 잡지에서 불쾌한 관광객과 진짜 여행자의 차이에 관한 논쟁이 일고 있다. "관광객은 늘 또 다른 단골손님에 불과하다"고 작가 이블린 워(Evelyn Waugh)는 비꼬았다. 그러나 순례자는 "아무 생각 없이 도시를 어슬렁거리는 관광객"이나 "황야를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여행자"가 아니라고 크리스천 조지(Christian George)는 '거룩한 여행'(Sacred Travels)에서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순례자는 도보 여행이 개인 취향이라 관광버스를 가급적 피하는 그런 여행자도 아니다. 순례자는 그저 사진이나 몇 장 찍으려고 그곳에 가는 사람도 아니다.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 찾아간 사람들이다.

죄의 심판을 덜어보자는 두려움에서 순례를 떠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 그러나 지금은 순례에 대한 영적 교만의 유혹이 어느 때보다 강한 때이기도 하다. 순례를 한 것으로 번지르르한 영적 우월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돌보이고 싶다는 욕심이 앞서면, 길 위에서 '진정한' 영적 경험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일이며, 잘 짜인 여정이 얼마나 큰 영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놓치지 마라. 아무튼, 침례교 목사이자 패키지

순례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랑 받은 성경 이야기는 대륙을 횡단하는 여행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야코보가 마지막 안식을 취한 곳이라고 전해지는 스페인의 '카미노 데 산티아고'(Camino de Santiago, '성 야고보의 길') 순례 루트-콤포스텔라(Compostela, '카미노 데 산티아고' 순례를 마치고 종착지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받는 순례 증명서)를 받으려면 순례자는 적어도 100km를 걷거나 200km를 자전거로 여행해야 한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트론헤임의 성 올라프(St. Olav, 북유럽을 이교에서 기독교화한 전설적인 바이킹 왕으로, 노르웨이의 수호성인이다)의 무덤에 이르는 647km 순례 루트 같은 것이 아니다.

순례자들의 사랑을 받은 것은 그저 11km 도보 여행에 불과한 이야기이다. 11km는 우리가 직장에 출근하거나 교회에 참석하거나 쇼핑하러 가는 거리보다 짧다. 11km를 도보로 여행할 때 걸리는 2시간 남짓의 시간은 통근거리로는 비교적 길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오늘날 대도시에서는 아주 드문 것도 아니다.

예수께서 모습을 드러내신 예루살렘 도심과 엠마오라 불리는 마을 사이의 길이 그것이다(일부 초기 자료에 의하면 11km가 아니라 29km 이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두 제자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누가복음은 이유를 말하지 않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길 두려워한 제자들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엠마오로 향했다기보다는 예루살렘 도성에서 달아났던 것으로 추측된다. 누가는 왜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부활하신 예수이심을 알아보지 못하였는지"도 설명하지 않는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과 행동에 능하신 선지자"가 십자가에 달리고 무덤에서 시신이 사라진 사건을 전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닷노라"라고 탄식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그 선지자가 죽어야 할 필요를 설명하신다. 그러나 예수님이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쪼개어 나눠주시자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열려 눈앞의 인물을 알아본다. 예수께서 사라지자 두 제자는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한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나?"

이 이야기는 수세기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 순례자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다. 엠마오 이야기가 그런 어떤 중세 미술품에는 예수님이 순례자의 옷차림을 하고 있고, 심지어

당시 산티아고로 가는 순례자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던 기념품인 가리비 껍질까지 갖추고 있다. 엠마오 이야기에 여행의 땅이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한 가지 교훈이 있다. 여행을 끝낼 때까지도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교훈 말이다. 여행에서 얻는 가장 큰 선물은 여행을 반추하는 무렵에야 얻을 때가 더 많다. 우리 머릿속에 가장 오래 남는 기억은 여행지가 아니라 여행길에서 만난 사람일 때가 더 많다.

엠마오 이야기에서 우리는 순례 여행과 여느 여행의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부활에 '관해' 알고 있었던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던 그 여행에서 부활의 실체를 체험했다. 그저 사건의 역사성을 이해하던 수준을 넘어, '사건의 체험'으로 나아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쌓아들이는 지식만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다. 우리에게는 또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 존재하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보고 느끼는 몸도 있다. 게티즈버그를 방문하고 나서야 남북전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가? 여러 세계 문제에 관한 엄청난 양의 자료를 읽으면서도, 몇 년 전 단기선교 여행 때 방문한 분쟁 지역에 관한 몇 줄 안 되는 소식에 더욱더 내 일처럼 관심이 가지 않던가? 일단 한 장소에 머물면, 그 장소는 진실로 우리 안에 남는다.

소망 칼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세소망교회)

요셉(Joseph)은 야곱의 열 두 아들 중 열한 번째로, 라헬이라는 여성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이다. 그가 태어났을 때 라헬은 "여호와와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하였고 그의 이름을 요셉(하나님이 더하실 것이다)이라고 불렀다(창30:24). 요셉은 은유함과 의무에 대한 성실성과 관용과 용서하는 정신이 탁월하여 고귀하고 이상적인 성품을 보여주기에 종종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가 성부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여 기쁘시게 한 것처럼 착하고 경건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다. 그는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죽을 고생을 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수 있다. 요셉은 효자이며 정직한 사람이다. 그는 형제간에 우애한 사람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사람(롬8:28)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원대한 꿈과 희망을 이루게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공경해야 한다. 히11:6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하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였다.

둘째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한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친을 위해 동물의 희생을 드리는 제사이다(출20:24, 레3:1-17).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다(요일2:2). 하나님은 인간이 정성껏 예배(제사)를 드릴 때 기뻐 받으신다. 구약에서는 인간이 죄악을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고 외면하셨다가도 제사를 드리면 노를 푸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삼상 15:22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신다.

넷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를 갖기 위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창1:27-28). 그러나 인간은 타락함으로써 이 교제를 거절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간과 교제를 나누셨다(히11:1-2). 결국 이 교제는 신(神)이며 인간(人間)이신 나사렛 예수 안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로써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요14:6, 히4:15-16). 그 안에서 인간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신다(엡1:3-14).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늘나라에서 그 완전함과 총만함에 이르게 된다(계21:3-4). 이렇게 볼 때 구속사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고 성경은 그 교제의 방법, 정도, 회복, 완성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법은 말씀과 기도, 성만찬 및 구제와 선행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힘써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자자손손 대대에 누리게 되기 바란다.

2015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본 협회는 아래와 같이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1. 대 상 :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및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 법 : 추천도서 6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Letter 또는 A4 size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며, 제출마감일은 2015년 10월 15일 미서부시간 오후 5시까지입니다.
3. 제출처 :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4. 시 상 :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일 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주최 :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박재호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 미주기독교방송(로스엔젤레스, 미국)
- 미주복음방송(로스엔젤레스, 미국)
- 미주크리스천신문(NY, LA 미국)
- 아벤티르(뉴욕, 미국)
- 유럽크리스찬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 크리스찬 월드(토론토, 캐나다)
-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추천도서



임양가족, 흥성사



데이빗 플랫 저, 두란노



일리ستر 맥그래스, 성서유니온



김미진 저, 규장



데이비스 케네디 저, 국제제자훈련원



게리 채프만, 생명의말씀사

후원 *도서구입처

-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 말씀사 714-540-2211 www.lifebook.co.kr
-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폼페이 화산폭발로 죽은 벨릭스의 아내

폼페이를 방문하면 21세기를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없다. 이유는 2000년 전에 거주했던 사람들도 놀라운 문명의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당시 폼페이에는 세탁소와 극장도 있었고 약국이나 경기장도 있었다. 집집마다 수도관을 연결했고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만들었음 정도다. 전문가에 의하면 선거 벽보도 발굴되었는데 나를 찍어주면 시민들을 위해 이런 일을 하겠다는 구호도 있었다고 하니 말이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을 새롭게 깨

닫게 된다. 이곳은 BC 8-7경에 그리스 사람들이 지배했던 도시다. 그 후 기원전 BC 89년에 로마의 장군 술라에게 정복되어 로마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스 사람들이 나폴리를 지배했고 가까운 이곳 역시 그리스 사람들의 지배하에 있었다. 사실 나폴리라는 말은 헬리어 네오폴리스(신도시)라는 의미다. 그들의 후예라서 그런지 나폴리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처럼 키가 작다는 공통점이 있다. 폼페이에서 멀지 않은 살레르노

의 파에스툼(Paestum)도 그리스 사람들이 기원전 5세기에 세운 도시다. 거기에 있는 두 신전은 얼마나 원형이 잘 보존되었는지 아테네에 있는 신전보다 더 완벽한 모습이다. 이런 여러 면을 볼 때 황해술이 뛰어났던 그리스 사람들이 일찍이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녔고 도착하는 항구마다 그리스의 도시를 건설한 것 같다.

그리스는 섬이 약 5천개나 존재하기에 섬과 섬을 잇는 통로가 바닷길을 내는 일이었다고 그것은 황해술의 발달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폼페이를 공중에서 보면 생선 모양으로 설계되어 있다. 머리 즈음에 경기장을 만들었기에 마치 생선의 눈처럼 구성되었다. 꼬리 부분에는 치미테로(Cimitero, 공동묘지)가 자리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런 건설은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이 라는 심오한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모른다.

나는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웬일인지 폼페이 멸망 전에 살다가 죽어 무덤들을 이루고 있는 곳에 대한 관심이 크다. 역사는 침묵하고 있지만 그 무리들 중에는 대단했던

인물들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우리 역시 그들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동질감도 작용할 테고 말이다.

그런데 폼페이가 화산재로 묻혀 완전히 잊혀진 도시였다가 1549년 운하공사로 하던 도메니코 폰타나(Domenico Fontana)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발견 당시 나폴리를 지배했던 스페인이나 불란서의 부르봉 왕조가 발굴한 유물들을 가져갔고 그 후 이태리가 통일 을 이룬 1856년경에 본격적으로 발굴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하게 되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로마인들의 생활상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폼페이가 화산재로 멸망한 것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티투스 장군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로마의 황제가 된 지 두 달만의 일이었다. 그는 유대인 여자를 불같이 사랑했지만 황제라는 신분 때문에 원로원의 허락을 얻을 수 없자 홀로 지내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동생 도미티아누스(Domitianus)는 야망이 세조만큼이나 많았던 인물이었기에 아버지가 형에게만 세자 교육을 시키는 일에 대해 평소

에 불만이 많았다. 그는 황제가 되고 싶어 안달했는데 형이 2년 만에 죽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황제가 되었다. 오히려 잘된 일이지 싶다. 그냥 두었다면 반란도 불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시시한 얘기를 쓰려는 것이 아니라 성서와 관련된 내용이 폼페이에 존재하기에 그 부분을 써보려고 서론을 길게 나열했다.

사도행전 24:24 이하에 보면 로마의 총독 벨릭스가 나오는데 그의 아내는 유대 여자 드루실라였다. 총독 벨릭스는 바울로부터 개인적으로 복음을 들었으나 "지금은 가라, 내가 틀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고 미루므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천국의 기회를 흘려보내고 말았다. 그는 복음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마음으로 자주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다(행24:25).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다.

그런데 총독 벨릭스가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결혼하게 된 이유는 드루실라가 굉장한 미녀였기 때문이다. 드루실라는 AD 39-44년까지

유대를 통치했던 아그리파 1세의 셋째 딸이자 아그리파 2세의 막내 누이로 버니게(행25:13)와 자매였다. 그녀는 콤파게네(Commagene)의 왕자 에피파네스(Epiphanes)와 약혼하였으나 그가 할례를 거절하고 유대교를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파혼했다. 15살이 되던 해에 할례를 받는 조건으로 에메사(Emesa)의 왕 아지주스(Azizus)와 결혼했다. 그 후 그녀의 미모에 매혹된 총독 벨릭스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그녀와 결혼함으로써 그의 세 번째 아내가 되었다.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드루실라는 벨릭스로부터 아그리파라는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

당시 폼페이는 바닷가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로 로마인들의 별장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이 모이는 곳은 항상 활력이 함께한다. 남편이 유대 총독 출신이었고 평소 탐욕이 대단했던 자였기에 많은 돈을 모았을 것이고 그 결과 이런 별장 지대에 살 수 있었을 것이다.

(9면으로 계속)

푸 / 른 / 초 / 장

이재덕 목사
(뉴욕사랑의교회)



대한민국과 세계에 흠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의 키워드는 '통일'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2015년은 희망찬 광복 70년이요, 아픔의 분단 70년의 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성경 사상은 6년 일하고 1년은 희년임을 감안할 때 '통일'이 곧 오리라 확신합니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비슷한 상황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에 이어 마지막 3차 포로 귀환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 이후 150년이나 지난 444년 즉, 에스라가 귀환한지 13년이 지난 후 사건입니다.

1. 하나님을 믿음

본문 2절을 보면 포로로 이끌려 와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가 형제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 땅에서 온 하나니와 몇 형제들을 만나 조국 유대의 상황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웨

파되고 성문들은 불에 전소되어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당한 소식을 듣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노예로, 젊은 여자들은 성적 학대를 당하는 유대 백성들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조국의 소식에 관심

을 갖는 것은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족의식이 투철함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며, 그리고 금식기도(4절)를 하고 회개기도(6절)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민족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같습니다. 일제의 36년 억압에서 해방의 기쁨도 잠시 잠깐 지나가고 1950년 6.25 동족잔쟁이 일어났습니다. 전 국민이 피난민이 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부산 초량교회 마당에서 민족을 위한 기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구원해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11절). 술관원은 이 시대로 말하면 대통령의 최 측근인 경제장관, 국방장관, 법무장관, 정보부장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사회는 술관원이 왕의 최 측근이었습니다. 창세기 40:1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혔을 때도 술관원(술 말은 자와 떡 굶는 자)이 이야기 나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제 이십년 기슬르월(12월)이라고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고레스

2. 자기 직무에 충실함

합니다. 그러자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2:4) 느헤미야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믿음과 그의 행정능력 그리고 헌신함을 나타내는 순간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물음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2:4) 대답합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로 끌려와 타국에서 살지만 성공하여 편안히 호강하며 살 수 있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합니다.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538-522), 다리오(522-486), 아하수에로(486-465)에 이은 바사의 네 번째 왕입니다. 바사왕국은 그 당시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으로 중동의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그러한 아닥사스다 왕이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2:2)고 물었습니다. 왕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느헤미야가 신임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2:3)라고 답

조서를 내게 주사"(2:7) 국경을 넘는 패스포트(신분증)를 달라고 합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삼에게도 조서를 내려서(2:8) 건축 자재를 준비해달라고 말합니다.

왕은 흔쾌히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군대장관의 호위 받으면서(2:9) 무저진 성을 보수하기 위해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3. 민족과 부모형제를 사랑함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건축 자재도 잔뜩 싣고 유대로 돌아

명을 드린 이스라엘의 재건과 왕의 허락이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므로"(2:8)라고 하고 백을 붙잡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의 보수를 성공시킵니다.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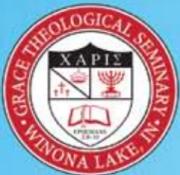
느헤미야는 그 옛적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9절).

느헤미야는 자신들이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축하신 주의 백성(10절)이므로 자신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간구합니다. 또 자신이 술관원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으로 고백합니다(11절).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또한 자기 말은 바 직무에 충실함으로 어디서나 인정받고 결국 조국을 위해 큰 역사를 이뤄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처럼 ①하나님을 믿고 ②자기 직무에 충실하며 ③민족을 사랑하고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1장 1-11절)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 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과정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5 가을학기 강의 안내

- Sept 28-Oct 2(9월 28 -10월 2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ter & Dr. Stephen Park
- Oct 5-9 (10월 5-9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Oct 8(10월 8일) 특강: Dr. Scott Moreau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ter
- DI 8220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 (구약에서의 문화)**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iberius Rata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영화를 보아야 하나? 보지 않아야 하나? 영화가 그리스도인과 비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성경적 방언을 모색해야 하나? 아래의 글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 성경에서 유추한 진리들을 통해서 답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다.

영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결론부터 생각해본다. 영화나 영화산업에 대해 양극단적인 견해들은 배제되어야 한다. 물론 영화는 성경에 대해 적대적인 성격을 많이 담고 있다. 영화는 세속적인 강력한 영향으로 우리의 신앙마저 손상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영화문화와 완전히 고립되어 사는 것만이 실제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기독교

쟁사건, 괴물, 음모와 로맨스와 같은 주제로 채워지면서 현실 도피의 장이 되었고 도덕적으로 건전한 내용들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하여 영화산업의 예술성이 저하되기 시작했고 교회와 영화산업의 관계도 점점 악화되기 시작할 수 있다.

영화가 여론을 형성하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사회는 영화에 대한 검열이 시작되었고, 특히 미국의 영화 제작자와 배급업자들이 자체 검열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동하는 협회가 조직되었다. 이에 따라 1920년대 후반에 100편 이상의 영화가 검열을 통과하지 못했다. 미국의 대공황시기에 대중의 주목을 끌기 위해 감각적인 작품들이 등장하여 관능적인 영화의 물결이 봄을 이루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기독교는 이런 영

역, 섹스, 언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것일 뿐이다.

3) 영화에 대한 다양한 기독교적 반응

기독교인이 이런 영화에 대해 취하는 태도는 다양하다. 다음은 기독교인이 영화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에서 수용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입장에서 살펴본다.

(1)회피: 기독교인은 영화에 맞서 회피하는 사람들로 반응할 수 있다. 이는 영화의 윤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출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영화를 마귀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영화 문화에 대해 적대시 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영화 자체를 거부하며 영화를 교육이나 신학적인 사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는 자세이다.

(2)경계: 영화에 대한 주의(cau-

에 그리스도와 적대 관계에 있다고 본다. 경건한 초대교회 교부들의 사상에서 그 전형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의 타락한 오락, 학문, 정치로부터 탈출하도록 권면하였고, 근대의 톨스토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대로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버는 이러한 반문화적인 유형의 삶은 그 자체 내에 문제점을 자기고 있음을 지적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점에서 영화는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할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이 영화 산업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E-Mail: tispoc0316@gmail.com

Q: 저는 현재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목사의 아내입니다. 약6개월 후에는 아프리카 세네갈로 저의 전문성을 가지고 가서 선교하고자 하는데 더위와 문화 등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선교에 대한 정신에 대해 조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김미현

A: 한번 밖에 없는 인생을 선교라는 가장 가치 있는 사명을 통해 승리하고 많은 영혼구원 하시기 열매거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선교사적인 삶의 모델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해 선교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요1장의 말씀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분이 이 땅의 인간과 동일화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초문화적(cross-cultural) 사건으로 주님은 천상의 문화를 넘어 지상의 문화로 깊숙이 내려오신 분입니다. 선교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은 심정으로 사랑과 겸손

예수님이 선교의 모델...고난 두려워 않고 성령에 의지하는 영적 전투 치뤄야

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선교지로 가서야 합니다.

과거 중국에 들어간 서양선교사들은 복음만 전했지 중국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자기들의 옷을 입고 선교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마음 깊숙이 중국 사람들과 동일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라는 영국 선교사는 중국 사람들의 옷을 입고 중국 사람들의 음식을 먹으며 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중국내지 선교회(China Inland Mission)를 만들어 중국선교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그들과 동일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아프리카로 가서 더위와 싸우며 열악한 문화 속에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아픔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어렵지만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선교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고난의 대가를 치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방의 빛이 되고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50:6-7을 보면 그는 그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밀기며 그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맞기며 수욕과 짐뺨음을 당했습니다. 주님은 한말의 밀알로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함으로 선교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고난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셋째,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의 능력입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면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 알파한 성경지식, 신학, 교리, 그것 가지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내 생각이나 계획보다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선교지에 도착하거든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일주일간 그곳에서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선교지는 각종 미신과 우상숭배, 악한 사상들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여러고성처럼 진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려면 영적전투를 하여야 합니다. 선교사로 가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충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그리스도인의 영화문화 이해 (상)

교인은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을 위해 살도록 부름 받은 사람이다.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균형을 가지고 타락한 문화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성경의 요청이다. 우선 영화가 어떻게 발전되었으며, 영화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본 후,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화문화에 대한 최선의 태도가 무엇일지를 상고해보려 한다.

1. 영화와 그에 대한 기독교 반응

1) 기독교와 관계된 영화의 역사 초기의 영화는 대부분 기독교적인 색채가 많았다. 이는 주로 전도자들에 의해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영화의 주제가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것도 아니지만 영화가 기독교적인 삶을 영웅적이며 교훈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태도는 매우 우호적일 수 있었고 심지어 교회가 영화관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벤허나 퀴바디스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연예계 시스템이 발전하며 영화관이 대형화되고 영화잡지들이 출간되면서 영화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영화의 내용은 점점

화들을 정화하는 운동을 촉구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와 그렇지 못한 영화에 등급을 매기기 시작했다.

2차 대전의 영향으로 영화의 제작 규정이 많이 완화되었지만, 기독교는 영화에 대한 도덕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 1950년대에 와서 검열제도가 사라지고 사회 기준이 변화하여 영화 제작 규정과 도덕성에 대한 모든 것이 무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1960년대는 영화 연출가의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부모들에게 영화의 내용에 대해 지침을 줄 수 있는 등급 체계가 필요해졌다.

2) 영화의 분류

영화계가 13개(폭력, 누드, 도박, 불륜 등)의 금지조항이 있었지만 그 금지조항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강제성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와 대립되는 경향이 더욱 짙어졌다. 그런 가운데 영화들은 G(누구든지 관람가), PG(부모동반을 조건으로 관람가), PG13(부모동반 하에 13세 이상 관람가), R(18세 이상 관람가), X(성인전용 영화로 21세 이상 관람가)를 확인함으로써 영화를 선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영화의 등급 분류 기준도 영화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을 고려한 것이 아니며, 단지 스크린 상에 표현되는 폭

tion)를 요구하며 늘 조심스럽게 다가야 한다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인은 영화를 볼 수 있지만 분명한 윤리적인 입장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다. 영화의 윤리적 측면에 대해 반응하되 우호적이면서 동시에 배타성을 가진 역설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3)변혁: 신학적인 관점에서 미리 영화를 비판하기보다는 영화 자체에 몰입한 후 신학적인 해석으로 변혁을 시도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4)수용: 영화 내용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보다 예술성의 심미적인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수용의 형태이다. 윤리적인 판단과 비평보다는 영화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종교적 휴머니즘에 기초해서 통찰을 얻는데 주력하는 자세이다.

2. 영화에 대한 기독교 문화 사상의 적용

리처드 니버(Richard Nieber)의 대표작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다섯 가지 유형의 문화관을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1)영화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이는 문화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배타적인 태도를 가리킨다. 이런 태도를 가진 이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사회 관습이 무엇이든지 간

2)영화문화의 그리스도: 이는 첫 번째 유형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이 유형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에 근본적인 일치와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위대한 교육자요 문화의 인도자로 묘사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토마스 제퍼슨은 그리스도를 완전한 도덕 교육가로 보았고, 윌리엄에르마하는 그리스도를 모든 종교와 문화의 완성자로 보았다. 그러나 이 관점은 신학의 본질과 그 문화적 표현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런 안목에서 영화를 평가한다면 영화는 항상 우리 곁에 있으면서 그런 영화문화를 깊이 이해할 뿐 아니라, 기독교인이 감당해야 할 한 분야로 생각한다.

3)영화문화 위의 그리스도: 이는 그리스도와 문화를 다 긍정한다. 그러나 둘 사이에 간격이 있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는 그리스도가 로고스와 주님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높은 위치에 놓고, 문화를 낮은 위치에 놓고 있다. 이러한 이원론적인 경향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에서 나타났고 후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영화는 신앙적인 면과 비교되어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문화로 평가된다.

(9면으로 계속)

경 광복 70주년 제18회 기념 축

성가찬양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모든 교회와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온 교우들의 가정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남가주 중부 교회협의회에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가주 중부 지역 모든 교회와 성도님을 모시고, 제18회 광복 70주년 경축 성가찬양제를 갖고자 합니다. 중부 지역에 소속된 모든 교회가 기쁨을 나누는 뜻 깊은 행사에 온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5년 8월 16일(주일) 오후 4시
2. 장 소 :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 (담임 방상용목사)
12413 E. 195th St., Cerritos, CA 90703 Tel.(562) 402-2919
3. 문 의 : 충무 최국현목사 (714)351-0124

참가하는 교회와 단체

실버합창단, 은혜찬양동선교단, 오렌지선교합창단, 라팔마연합감리교회 시온성가대, 감사한인교회 임마누엘 성가대, 카이로스 찬양팀,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 성가대 등

남가주 중부 교회협의회
회장 심 명구 목사(한민감사교회 담임)

<임원> 회 장 심명구 목사 부회장 전동은 목사 부회장 현에스터 목사
총 무 최국현 목사 회 계 김순옥 목사

담임목사청빙

워싱턴주 씨애틀에 위치한 시온장로교회(PCUSA)는 자체교회당을 소유한 복음주의적인 교회로 30년을 시무한 담임목사의 은퇴로 후임목사님을 다음과같이 청빙합니다.

*** 자 격 ***

1. 신학교 (M.Div.) 졸업하신분.
2. PCUSA 교단소속이거나가입가능하신분.
3. 담임목사 5년이상하신분 (부목사경력포함).
4. 한국어,영어설교가능하신분.
5. 미국체류에결격사유가없으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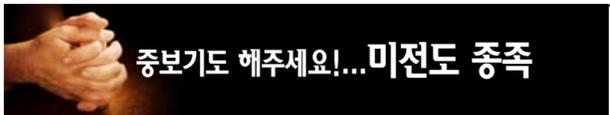
*** 제출서류 ***

1. 이력서(한국어,영어각 1부사진포함)
2. Personal Information Form(www.pcusa.org에서다운가능)
3. 목사안수증명서(Certificate of Ordination)
4. 신학교(M.Div)졸업증명서
5. 신앙고백서(Statement of faith)
6. 신앙여정서(Journey of faith)및자기소개서 (가족,내가만난하나님,목회자가된동기)
7. 목회소견서(목회계획,목회철학,목회 Vision)
8. 추천서 2부

*** 보내실곳 ***

Korean Zion Presbyterian Church(청빙위원회)
17920 Meridian Ave, N. Shoreline, WA 98133
Email: zionpnc@gmail.com
* 서류마감일 : 2015년9월 26일
* 문의: 시온장로교회청빙위원장송광우장로
* 제출서류는반환하지않습니다.

시온장로교회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레마탕(LEMATANG)



레마탕은 큰 종족 그룹인 파세마(Pasemah)족에 속한다. 파세마(Pasemah)족은 레마탕 뿐만 아니라 린탕(Lintang)족과 렘박(Lembak)족과 혼합된 종족이다. 레마탕은 주로 수마트라(Sumatra)지역의 고지대 평원(파세마 레바-Pasemah Lebar)지역에서 산다. 그러나 일부는 수마

트라 동편 해안에서 다소 떨어진 보르네오 해안에 섬 근처에서 살기도 한다.

파세마족은 아마 보르네오 연안에서 기원한 파세마 페닌슐라(Pasemah Peninsula)족에 뿌리를 두고 수마트라에까지 퍼져있으며 그들과 교역 해상 생활의 결과로 생긴 것 같다. 그들의 문화는 시아메세(Siamese), 자바족(Javanese), 수마트라족(Sumatrans) 등 다른 종족들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

레마탕 공동체는 처음에는 부킷(Bukit) 바라산(Barisan) 산악 지역을 따라 확장됐다. 그들의 정치

적 중심지인 파가르 말람(Pagar Alam)-자연의 숲이란 뜻은 이웃 종족인 레장 족의 침략으로부터 파세마를 보호하기 위해 세워졌다. 오늘날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구역의 수도로 라하트(Lahat)이라는 도시를 세웠다.

삶의 모습

파세마(Pasemah)족과 같이 레마탕은 시골지역의 50에서 1000여명의 마을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있다. 국가의 대부분은 정글지대이지만 마을은 해안가, 강, 길가를 따라 위치해있다. 정착자들 중에 레마탕족은 대나무로 집을 지으며 땅에서 4에서 8피트정도 높이에 세운다.

레마탕족은 농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데 모든 고용인의 약 80%에 해당한다. 고무는 주요 상업 작물이고 커피와 쌀도 재배한다. 쌀

경작은 팡이를 사용하거나 황소 또는 물소를 이용해 쟁기질하기도 한다. 파종과 추수는 주로 가족 친지들이 모여 남녀 불문하고 협력하며 농사꾼들은 수확된 작물을 트랙터를 이용해 운반한다. 어느 농사꾼은 거둬들이 수확물 일부를 몇 년간 쌓아두었다가 그 수확물을 가지고 정부로부터 트랙터 한 대를 산다.

사람들이 농경생활을 한 이후로 대부분의 기념행사는 추수에 맞춰 열리게 됐다. 이러한 행사들은 결혼, 할례식, 머리카락을 자르는 의식 등이 포함되며 이 활동을 통해 마을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강한 공동체성을 느끼게 된다.

레마탕 가족들은 핵가족이 기본으로 자신들의 집을 각각 소유하려 하는데 신혼부부는 그들의 부모와 일시적으로 살 수 있지만 그들도 곧 자신들의 집을 마련하려

고 한다. 여성은 "사롱(sarongs)"이라 불리는 몸 전체를 감아 입는 긴 천들이 모여 남녀 불문하고 협력하며 농사꾼들은 수확된 작물을 트랙터를 이용해 운반한다. 어느 농사꾼은 거둬들이 수확물 일부를 몇 년간 쌓아두었다가 그 수확물을 가지고 정부로부터 트랙터 한 대를 산다.

신앙

오늘날 모든 레마탕족은 거의 수니파 무슬림이지만 과거에 인도로부터 힌두의 영향도 상당히 받았다. 각 마을의 중심에는 의례 종교적인 의미의 모스크 예배당이 있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금요일 기도 모임에 참석하거나 일부 시간을 드러모스크에 들린다.

시골 지역의 레마탕족은 정글과 땅의 신들과 같은 정령숭배의 신앙

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전통적인 치료 행위는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샤만(의술행위 하는 사람)"은 종종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질병과 고통을 상담해주기도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레마탕족은 시골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미취업자들이 많아 대부분 남성은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 지역으로 이사하도록 권고 받는다.

레마탕족의 극히 일부는 복음을 들은 적이 있지만 그들 사이에서 현재 사역하는 선교단체는 없다.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나 "예수" 영화, 기독교 라디오방송도 없다. 성경번역자, 의사와 같은 직종의 헌신된 기독교 선교사들이 상당히 요청된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서울, 메가처치 주일예배 참석자 가장 많은 도시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메가처치(Mega Church)'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대형 교회를 일컫는 메가처치는 통상 주일예배 참석자 수가 2000명이 넘는 교회를 뜻한다.



30일 종교 분야 연구를 담당하는 하트포드 연구소(HIRR)와 기독교비영리재단인 리더십네트워크(LN) 등에 따르면 '예배 참석자 수가 가장 많은 메가처치 10대 도시' 가운데 서울(82만5000명)이 1위로 꼽혔다(표 참조).

주일 평균 48만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와 명성교회(김삼환 목사),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소망교회(김지철 목사),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 등 서울의 대표적 메가처치들의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에 이어 나이지리아 라고스(34만6500명)와 미국 휴스턴(21만1936명)이 뒤를 이었고, 경기도 안양(7만5000명)도 7위에 이름을 올렸다.

메가처치의 수를 기준으로 한 '세계 10대 메가처치 도시' 집계에서도 미국 휴스턴(38곳)과 댈러스(19곳)에 이어 서울(17곳)이 세 번째로 꼽혔다.

미국 유력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미국식 메가처치는 어떻게 전 세계로 이어지고 있느냐'를 제목으로 한 기사에서 이를 집중 분석해 보도했다.

25년 동안 메가처치를 연구해온 종교사회학자 스코트 썸마 HIRR 디렉터는 "메가처치 성장에는 한국 처럼 도시화와 경제성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한국전쟁 이후 급속한 현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메가처치는 수많은 상경 이주자들이 도시생활에 적응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19세기 미국에 뿌리를 둔 메가처치와 세계로 퍼져 나간 메가처치 사이의 차이점도 확인됐다. 미국 메가처치는 보통 주차장을 제공하기 위해 교외에 입지한 경우가 많다. 교회 건물은 수평으로 넓게 자리 잡고, 교회 구성원 대부분은 중산층 이상이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외의 메가처치는 주로 도로나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닿을 수 있는 도심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건물은 수직적인 경우가 많고,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로 구성돼 있다. 평균 주일예배 참석자 수도 미국은 한 교회당 약 2750명인데, 다른 나라 도시들의 메가처치는 평균 6000명에 달한다. 썸마 디렉터는 "아프리카나 다른 도시 교회들의 경우, 선택 가능한 교회가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메가처치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가톨릭의 영향이 두드러지는 유럽은 인구 감소와 함께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썸마 디렉터는 "메가처치 모델은 급격한 경제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중국에서 획기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서 이승만 박사탄생 140주년 기념우표 발행

미국우표 제작 대행사인 골든에플즈(대표 이정)는 30일 대한민국 건국대통령인 이승만 박사 탄생 140주년 및 서거 50주기 추모 미국 우표를 발행했다.



이번에 제작된 우표는 한 시트에 20개가 인쇄됐으며, 제작 수량은 2종 3시트씩 모두 60장이다. 이번 우표는 일반에 판매되지 않고 한국의 이승만 박사 기념 사업회에 기증될 예정이다.

이승만박사의 아들인 이인수씨는 우표 발행에 맞춰 "올해는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이라며 "이 박사는 평생을 대한민국 건국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해왔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도 미국 우체국의 승인을 받아 우표를 제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한인교포 사회가 주도해 서재필 박사 탄생 150주년, 세월호 영웅 최재형·박지영씨 추모,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우표가 각각 발행된 바 있다.

IS 병력손실 1만5천명...모병 통해 손실만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이슬람국가'(IS)가 미국 주도의 공습으로 사망한 대규모 병력 손실을 모병을 통해 상쇄하고 있다고 미국의 USA투데이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군과 정보기관 소식통들의 말을 빌려 지난해 8월 8일부터 시작된 5천500여 차례 이상의 연합군 공습으로 IS 전투원들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소부대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 바람에 넓은 점령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일일 전투피해평가서 등을 근거로 공습 과정에서 IS의 사망자 수를 1만5천여 명으로 추산했다. IS는 이에 따른 전력 손실을 만회하려고 전 세계에 산재한 무슬림들의 지원으로 새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지도부를 교체하는 데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름을 요구한 한 정보 소식통은 미 중앙정보국(CIA)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IS 전투원 규모를 2만~3만1천500명으로 추산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전투 병력 규모는 거의 같다고 주장했다. IS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새로운 피'를 공급받았다는 얘기도 전했다.

사망자 수를 고려할 때 IS가 곧 붕괴할 것이라는 성급한 예측에 대한 경계론도 나왔다. 마틴 템프시 합참장은 이날 초 이라크 주둔 미군들과 만난 자리에서 IS와의 전투는 여러 해 동안 이어질 것이고 일선에서의 승리와는 별도로 IS의 무자비한 이념도 깨부수지 않으면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선 지휘관들의 의견도 마찬가지다. 지상전에서 이라크군과 쿠르드족 민병대 등이 거두는 승리와 함께 공습도 IS가 이전에 누렸던 전력 우위 상황을 바꾸고 전력을 크게 약화시켰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라크에 근무하는 영국군의 제임스 리어먼트 준장은 "IS에 대한 결정적인 순간은 서서히 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북한 억류 임현수 목사 평양서 "혐의 인정한다" 회견

지난 1월말 북한에 입국한 뒤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60) 목사가 30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당국이 적용한 혐의(체제 전복 활동)를 인정했다고 교도통신이 평양발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 목사는 북한에서 촬영한 자료를 이용해 '북한의 현실' 등의 제목을 단 영상을 제작한 뒤 교회 신자에게 보여주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것을 인정하며 "범죄 행위임을 솔직하게 인정한다"고 말했다.

북한 내에 국수 공장, 라면 공장 등을 설립해 운영했고 24만 달러 어치의 북한 고아 겨울옷 보내기 운동도 추진해 오며 '북한 선교의 대부'로 불리던 임 목사는 이날 "내가 저지른 가장 엄청난 범죄는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모독하고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한 것"이라며 그 동안 북한을 다녀오면서 종교교과를 세우려고 했으며 캐나다, 미국, 일본, 브라질, 한국 등 교회에서 '사역보고'를 하면서 북한을 비난했다"고 말했다.

임 목사는 구체적으로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에 대해 '공포 정치', '악의 집단'이라고 헐담하는 등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이 쫓겨대는(지컬이)는 것을 그대로 되받아 넘기면서 '북은 이제 얼마 못 가고 망한다. 지금 마지막 순간'이라고 망언을 했다"고 말했다.

임 목사는 지난 1월 30일 경제협력 사업을 위해 나

오이며 31일 평양으로 불러들이자 들어갔다 북한 당국에 체포된 뒤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은 그는 자신이 2월 2일 평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평양으로 간 이유에 대해 "경제협력 사업과 지원의 명목으로 평양에 손을 뻗쳐 보려고 평양시에 비법적으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임 목사는 자신이 지난 1월 30일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한 실무면담을 위해 나선에 입국했으며, 에블라 바 이러스 방역 비상조치를 어기고 2월 2일 평양에 들어갔다 2일 밤 북한 기관 단속에 걸린 뒤 3일부터 21일 동안 격리됐으며, 2월 24일 범죄혐의에 대한 법적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자신이 해 온 대북 인도적 지원을 두고서도 "공화국에 대한 이례적 지원의 명목으로 각지를 돌아다닌 것도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 압살정책에 편승하여 북의 체제를 뒤집어엎고 종교교과를 세우기 위한 거점을 꾸리기 위한 데 있었다"고 말했다.

임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또 그동안 탈북자 지원 활동에도 참여해 왔으면서 "1996년 몽골에서 미국 대사를 만나 한 해 500여 명의 탈북자를 도주시키는 문제를 모의했으며, 탈북자 유도책동을 하고 있는 데니스 김이라는 미국 국적의 남조선 사람으로부터 GPS 기계를 받아 조선족 탈북기간국에게 넘겨줬다"고 했다. 큰빛교회가 세운 중국 길림성 도문시 월청진 '마태교회를' 탈북 유도 거점지역으로 삼았다고도 말했다.

또 반북 인사들의 명단을 요구하는 북한 측 기자의 질문에 "공화국에 대한 모략적이고 극단적인 설교로 동포사회에 반공화국 대결을 고취하는 교회와 목사들이 한 일이 아니다"라며 남한 교회와 미국, 브라질 내 한인교회와 목사들의 이름을 열거하기도 했다.

임 목사는 그러면서 "공화국에 대한 허위와 날조, 기만으로 빚어진 설교를 하는 것은 신앙심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정의와 진리, 선의에 대한 부정이고 배반"이라며 "진정으로 종교인으로서의 신앙양심에 충실하다면,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 도움이 되는 선한 일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목사는 마지막으로 "나는 소위 동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족이 가장 미워하는 대역죄를 지었다. 다시 한 번 온 민족 앞에 나의 형언할 수 없는 대역죄를 머리 숙여 깊이깊이 사죄한다"면서 북한에서 "미국과 남조선 위정자들, 서방세계의 악선전과 뿌리 깊은 반공화국 적대이념으로 하여 볼 수 없었던 참세상, 참다운 진실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된 것이 기쁘다"고 덧붙였다.

임 목사는 자신이 지난 1월 30일 경제개발사업 실무면담 명목으로 라선 경제특구로 들어간 뒤 2월 2일 평양으로 이동했다가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북한은 에블라 유입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이후 북한은 지난 3월 캐나다 정부에 임 목사 억류 사실을 통보했다.

"임현수 목사, 국가전복 음모행위했다" 북, 연일 비난 공세

북한이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에 대해 북한 주민들을 동원해 연일 비난 공세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3일 북한 주민이 기고한 '허위날조와 악선전의 본거지에 무자비한 징벌을'이라는 글을 싣고 임 목사의 반복 행위가 "특대형 범죄"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1월 경제협력 사업을 위해 북한에 들어갔다 억류된 임 목사는 지난달 30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최고 존엄과 체제를 중상 모독하고 국가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했다"고 자백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임 목사가 "우리 천만 군민이 심장으로 만드는 수령영생위업과 주체혁명 위업계승에 대해 악담을 늘어놓았다"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가장 모독적인 도전이며 극단적인 망동"이라고 손가락질했다.

이어 임 목사가 "지원을 명목으로 우리 체제를 뒤엎고 종교교과를 세우기 위한 거점을 꾸리려고 책동했으며,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납치 행위와 '탈북자 지원' 책동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억류를 정당화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온갖 허위날조와 악선전으로 공화국의 현실을 왜곡하며 주권국가에 대한 전복음모도 서슴지 않는 모략의 본거지에 무자비한 징벌을 안

길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일과 1일에도 '진실을 모르면, 외면하면 악인이 되고만다', '그 무엇으로써도 우리의 신념을 꺾을 수 없다'는 제목의 북한 주민들 글을 잇달아 소개하며 임 목사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펜 주 웨슬리교회 동성결혼 문제로 UMC탈퇴

펜실베이니아 주의 한 감리교회가 교인 투표를 통해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연합감리교(UMC)를 떠나기로 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다.



주일예배 평균 출석 인원이 약 650명인 펜실베이니아 주 퀴리빌(Quarryville)에 있는 중형 감리교회 '웨슬리교회(Wesley Church)'는 약 5개월간 교단 탈퇴를 놓고 토론 및 모임을 갖고 교인 투표를 실시한 후 다수의 의견을 따라 UMC를 탈퇴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교인 투표에서 UMC 탈퇴에 찬성하는 교인들이 무려 95%에 달했다. 이후 교회 대표들이 UMC측과 논의한 후에 교회 재산을 지키는 대신 UMC 측에 1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이 협상 조건을 놓고 다시 투표를 실시, 97%의 교인들이 찬성해 지난 7월 5일 10만 달러를 지불하고 UMC에서 탈퇴하는 것을 공식화했다. 웨슬리교회는 이번 교단 탈퇴로 소속 교단이 없는 초교파교회로 됐다.

크리스 렌하트(Chris Lenhart) 웨슬리교회 협력목사는 "우리는 웨슬리가 믿고 지지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UMC 사이에 큰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서 "우리가 UMC를 탈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입장의 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웨슬리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됐으며 무오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완벽한 유일한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믿고 지지한다"고 천명한 후 "우리는 UMC의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 그들은 커다란 이슈에 대한 문제를 보았다"고 지적했다.

렌하트 목사는 "우리의 소망은 UMC 내에 성경의 영감성, 무오성, 유일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이들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며 깊이 생각해보는 것"이라며 "UMC의 일부 교회에게는 교단 내에 머물면서 내부 개혁을 위해 싸움을 벌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교단에서 탈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명확했다"고 말했다.

중국교회 수천 곳에 잇따라 십자가 철거 수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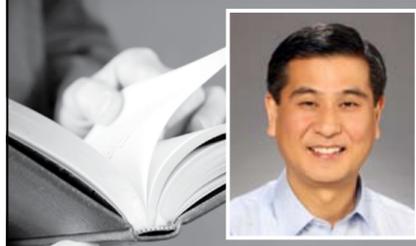
중국에서 가장 기독교 활동이 왕성한 것으로 알려진 저장성(浙江省)에서 지난 5월부터 당국에 의한 교회 탄압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4일 일본 교도통신이 현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저장성에서만 이미 수천 곳의 교회에서 크레인 등을 동원해 십자가를 철거하거나 파괴했다. 당초 이런 조치는 공산당에 등록되지 않은 '비공인' 교회에 대해서만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공산당에 등록된 일부 교회에서도 십자가 철거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1200개 이상의 교회가 십자가를 철거당했다. 중국 당국은 겉으로는 '안정이 우려된다'는 명분으로 십자가를 철거해왔다. 현지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독교 탄압에 나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교도통신도 시진핑 지도부가 공산당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 하에 최근 잇따른 민주화 세력 탄압에 이어 교회 탄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과거 기독교를 탄압했던 중국에서는 크리스천 인구가 점차 늘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중국의 크리스천 인구는 오늘날 약 1억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중국 전체 공산당원 수(8800만명)보다 많다.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30)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 교회 - 교부 (13) 변증 교부, 알렉산드리아 학파 (3)

성경은 신앙의 규범이다. 신앙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 크게 기뻐하신다. 성숙한 성도는 성경을 사랑한다. 성경께서 조망해주시길 기대하며 수시로 읽고 묵상한다. 그러나 성경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피할 것이 있다. 자의적(自意的, autonomous) 해석, 즉 자신의 뜻대로 성경의 의미를 부여하는 잘못된 방법이다. QT와 묵상이 보편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질문: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어 전통으로 남아있는 자의적 해석이 지닌 위험성이 무엇인가?

1) 교회 역사를 보면...

■ 오리겐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전통은 오리겐(Origen, 185-254)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게 된다. 그는 초대 교회에서 활동했던 인물들 가운데 잘 알려진 인물 가운데 하나이다.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으며 성숙한 그는, 17세의 나이에 부친의 순교를 경험하였다. 남다른 열정적인 신앙을 지녔던 오리겐은 이런 상황에 굴하지 않았다. 부친에게는 당당하게 죽음을 맞을 것을 격려했고, 자신도 따라서 순교를 자청하였으나 모친이 지혜롭게도 그의 옷을 숨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순교의 기회를 놓친 그는 평생토록 순교를 각오로 무장

되어 지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오리겐은 기독교 영지주의를 발전시켰던 클레멘트(Clement)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철학과 신학에 두각을 나타낸 그는, 18세가 되는 해에 문법학교에서 세례 지원자들에게 강의하는 일을 맡아 전념하게 되었다. 향후 어거스틴을 제

위한 초대교회의 저술자들 중에 가장 많은 양의 작품을 남긴만한 실력의 기반을 제대로 닦았던 것이다.

오리겐은 철저한 금욕주의자였다. 성적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고환을 거세하였다. 음식을 빈약하게 먹었고 맨바닥에서 잠을 잤다. 그에게는 세상적인 욕심을 과감히 끊어버리는 결단력이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반드시 영혼을 순결하게 지켜야 한다고 몸소 삶으로 실천하려 한 것이었다.

■ 정통으로부터 벗어나

오리겐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동시에 매우 부정적이다. 헬라철학을 통해 기독교를 변증하려했던 알렉산드리아학파는, 출발점부터 지니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

고 날이 갈수록 사도들의 신앙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결과를 맺게 되었다. 가장 현저한 오류는 그의 성경관에 있다.

오리겐은 항상 자기 자신이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정통신학을 지녔다고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이단들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변증이 자신에게 주어진 중대한 사명이라고 생각하여, 성경주석과 변증서 제작에 주력하였다.

에 관하여 성부는 성자에게 알려 지시는 것보다 스스로 더 충분하고 명확하고 온전히 아신다”(원리론, IV 35).

또한 그가 이해하는 인간의 영혼은 정통신학으로부터 크게 벗어났다. 그는 인간의 영혼이 육체 안에 머물게 된 이유는,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 영혼은 선으로부터 이탈해서

숨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파악하는 일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 그 후로 그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무엇보다 성경의 영적 해석을 중시하게 되었다.

헬라철학이 성경해석에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성경의 의미들은 세 가지 방법으로 영혼 안에 기록되어야 한다. 단순한 것은 문자의 문체로 세워진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명백한 의미라고 부른다... 그러나 육체적인 내용을 전혀 담지 않은 성경 본문들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영혼과 정신을 찾아야 한다”(원리론, IV.ii.4-5). 그가 제시한 삼분법은 이미 그의 선배인 필로와 클레멘

스가 있다. 오리겐은 알레고리 해석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계승받아 교회가 잘 보존해온 가르침에 들어있던 내용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으나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하는 신비로운 뜻을 발견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의무라고 역설하였다.

오리겐이 추구하였던 영적 해석은 성경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대한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무시한 신비주의자들과는 구분될 수 있으나, 성경의 영적 의미를 완전히 알 수 있다는 전제하에 주저하지 않았던 그의 자의적인 해석을 신비주의에 가깝다. 향후 교회는 오리겐의 알레고리는 교회에서 위험한 성경해석으로 여겨 거부하게 되었다.

2) 성경이 보인다 - 베드로후서 1:19-21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성경께서 조망하시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실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여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지나라는 것이다. 성경은 사람의 지혜나 연구의 결과로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성경 전체에 기록된 내용이 ‘사전’일 뿐 아니라, ‘주석’이다. 즉,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야 한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한 권의 책이다.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기본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다면, 이미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진 자의적 해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을 사사같이 풀지 말라!” 현대 교회가 겸손하게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이메일: covenantcho@yahoo.com

오리겐의 영적 해석은 주관적 해석에 문열어 신비주의에 가까워 성경으로 성경 해석... 인간 지혜나 연구로 진리 드러내는 것 아냐

또한 그는 245-248년에 모두 8권으로 된 “철수스 논박”라는 변증서를 저술하였다. 이는 제목이 시사하는 대로, 철수스라는 이교도 철학자가 178년에 펴낸 “참된 가르침”이라는 글에 대한 반박서이다. 철수스는 그리스도를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며 그리스도인들은 신화에 불과한 사실을 근거한 신앙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리겐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하게 변증하였다.

오리겐은 자신이 정통신학을 변증한다고 주장하였지만, 그의 신학은 이미 정통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예를 들어, 그는 삼위 일체를 부정하는 이단에 맞서서 변증하는 일에 힘을 썼지만, 그는 성자를 성부와 동등하지 않고 종속적이라고 잘못 주장하였다. 그는 성부가 성자를 통해서 전능하시다고 믿었던 것이다. “만약 성부가 모든 것을 포괄하시고, 성자로 ‘모든 것’에 포함된다면 성부 성자를 포괄하시는 셈이다. 지식

점점 악으로 기울고 그 안에 빠져들게 되어 비이성적인 존재가 된다. 이 타락한 영혼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구원행위이다. 종말에는 모든 것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사탄까지도 포함된다.

■ 알레고리 - 풍유적 해석

그는 지금도 성경해석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알레고리 또는 풍유적 해석의 전통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히게 되었다. 초기에는 오리겐도 역사적 문법적 방법을 성경해석에 적용하였다. 성경 원문 해석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230년경에 구약성경의 여섯 개의 번역본을 대비한 ‘육중 역본(Hexapla)’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본문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에 치중하였던 그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문자적인 의미 뒤에

트가 원용한 것이다.

알레고리의 한 예를 들어보자. 그는 에덴동산에서 받은 아담의 저주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알레고리로 해석한다. “사람이 낙원에 직 그리스도의 구원행위이다. 종말에는 모든 것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사탄까지도 포함된다.”

오리겐은 세 가지 의미 즉, ‘문자적 의미’, ‘도덕적 의미’, 그리고 ‘신비적 의미’로 성경을 해석하였다. 이와 같이 그가 영적 해석에 심취되었던 것은 그가 지녔던 신앙의 자세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성경을 접할 때 반드시 ‘문자적 의미’를 넘어 성도들의 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되는 ‘도덕적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이보다 깊은 ‘신비적 의미’란 삶의 여로로 지향해야 할지 모르겠는 내용으로서, 그 중심에는 예



정말 그랬을까?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14)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기드온의 300용사가 과연 정예부대였을까?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삿6-7장)를 통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적은 수라도 할지라도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잘 훈련된 정예부대만 있다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설교를 많이 듣는다.

정말 기드온의 300용사가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힌 정예부대였을까? 그래서 적은 수를 가지고도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일까? 기드온이 모사를 모집하자 32,000명이 모여들었다. 적지 않은 숫자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돌려보냈

다. 그러나 만 명만 남았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룻 밤에서 흘러나와 개울로 흘러가는 물을 먹도록 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훔아 먹은 사람들도 있었고,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나님은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들은 돌려보내게 하시고 훔아 먹은 사람들만 남겨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전쟁터로 나가게 하셨다.

전쟁에 나갈 정예 부대를 뽑으려면 칼 솜씨나 체격이나 무술 솜씨를 보고 뽑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물 먹는 모습을 보고 정예 요원을 뽑는단 말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사람들이 싫격된 것을 그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손으로 물을 마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 군인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반면에 엎드려서 물을 훔아 먹은 사람들은 두 손에 무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처럼 물을 훔아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만일에 물을 혀로 훔아서 마신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들을 뽑았다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순간에도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어떻게 인간이 개처럼 물을

활아서 먹는단 말인가? 군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을 훔아먹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개울물을 마시는 방식을 보고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1만 명 가운데 9,700명이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고 나머지 300명이 엎드려서 혀로 훔아먹는 것을 보시고는 엎드려서 혀로 물을 훔아먹는 사람들을 뽑으셨다. 반대로 9,700명이 혀로 물을 훔아 마셨고 나머지 300명이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300명은 돌려보내고 9,700명을 전쟁에 내보냈을까? 아니다. 혀로 물을 훔아먹은 9,700명을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들은 남겨 하셨을 것이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자세로 물을 마시는가를 보고 최종 선발을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1만 명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돌려보내기 위

해 물을 마셔보게 하셨던 것이다. 돌려보낸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서 돌려보낸 것이 아니고, 남은 사람들도 자격이 있어서 남은 것이 아니다.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가 기준이 아니었다. 전쟁에 나갈 군인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이런 방법을 사모하신 것뿐이다.

그들이 뽑힌 것은 그들의 실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무에 능력이 출중해서 뽑힌 사람들이 아니었다. 자격이 있어서 뽑힌 것도 아니었다. 경쟁을 통해서 뽑힌 것도 아니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용맹스러워서 뽑힌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 눈에 들어서 뽑힌 것도 아니었다. 그냥 무작위로 아무나 300명을 뽑은 것이었다. 그들이 뽑힌 유일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들은 다수에 속해 있지 않고 혀로 물을 훔아먹은 9,700명을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들을 남겨 하셨을 것이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은 3만 명 가운데 300명만 뽑아서 전쟁에 나가게 하셨는가? 다 나가 싸우면 훨씬 유리할 텐데, 왜 자원해서 싸우겠다고 나온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것일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 아니라”(삿 7:2).

3만 명이 다 나가서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 우리가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할 것이다. 그런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3만 명 중에 300명만 남겨 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300명의 용사들이 전투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싸움 한 번 해보지 못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했다.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로 하여금 자기들끼리 칼을 휘두르면서 싸우게 하셨다. 자기들끼리 싸우다 망하게 하신 것이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 아니라”(삿 7:2).

3만 명 가운데 300명만 남긴 이유도, 그리고 그 300명마저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게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메일: jinlee1004@yahoo.com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DYNAMICS 다이나믹스

MARTIAL ADRENALINE ZONE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교회 타월
교회 티셔츠
프린팅 및 자수
광고배너
교회배너 제작

www.dynamicsworld.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모라비안(Moravian)이라 불리는 사람들 (3)



박시경 박사
(그레이스신학대학원 한국프로그램 디렉터)

또한 저들은 농업과 목축업과 수공업에 종사하면서 성경적 경제공동체를 구현했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재물을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기금을 마련하여 복음을 위해 헌신한 것입니다. 그것도 지도자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자발적인 모습으로 경제공동체를 구현해 나갔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정빈(가난)을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여기며 살았더니, 저들의 영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지 않았지만 저들은 말없이 초대교회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소문이 독일의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자, 제도화되고 형식화 되어가고 있는 루터교에 만족을 느끼지 못해 영적으로

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라비안들의 영성을 따라하는 것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원수를 사랑함'에 있어서 예수의 모범, 사도들의 모범'을 따를 자신이 없어집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교회의 분열, 교회 내 파벌,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간의 갈등...

기도 시간에 저들은 세계 선교를 위해 중보기도에 힘썼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전념했습니다. 그 당시 문헌들을 검토해보면, 저들의 영성이 자신의 안위, 가족의 번영,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사실이 여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세계 선교와 평화위해 기도 · 스스로 노예 된 '성육신선교' 실행

갈급함을 느낀 독일 크리스천들이 모라비안 공동체로 합류해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영국으로 건너간 모라비안들에 대해서 영국 교인들은 'The Germans-그 독일인들'이라고 지칭했나 봅니다. 그렇다면 모라비안들의 일상에서 영적생활이 얼마나 모범적이었으면 그 땅의 독일인들마저 저들에게 찾아와 기꺼이 저들의 신앙공동체에 합류했을까요? 모라비안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인 그레고리(Gregory)가 영국의 조지 왕(King George)에게 쓴 편지의 일부를 통해 그들의 영적 정체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함, 청빈, 인내, 원수를 사랑함에 있어서 항상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사도들의 모범에 의해 인도함을 받았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Moravian Church in America, p.24 참조).

자신들의 고향인 체코 모라비아 지방에서 카톨릭교회로부터 그토록 혹독한 박해를 당해온 사람들이 '예수의 모범, 사도들의 모범에 따라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서약하는 평화주의자들이 모라비안들



펜실베이니아 주 베들레헴Bethlehem에 있는 모라비안 교회를 가보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있는 어린양' 엠블럼

저들은 어린이들과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오전 8시부터 세 시간동안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저녁식사 후 6시부터 또 두 시간동안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저녁 예배가 성령의 임재로 인해 새벽녘까지 이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

주 베들레헴 Bethlehem에 있는 모라비안 교회를 가보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있는 어린양' 엠블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린양은 (죄를) 이기셨다. 그를 따르자"라는 구호와 함께 모라비안 교도들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양(예수 그리스도)이 나의 죄를 위해 고통스런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그 어린양을 위해,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저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영성의 소유자들이었기 때문에 에스키모 원주민을 위해 북극의 그린란드, 아프리카, 카리브해의 여러 섬들에 무덤 파

는 사람으로, 토기장이로 생업을 삼으면서 그 사회의 최하층 사람들과 스스로를 동일시하여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국이 주도한 노예무역이 성행하고 있었는데, 카리브 섬 지방에만 3천여명의 아프리카 출신의 노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예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유일한 길은 선교사 자신이 노예가 되는 길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유럽의 백인 출신 선교사가 영국 노예상인에게 스스로 노예로 팔렸습니 다. 노예가 되어 아프리카 노예들과 같은 노역을 하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니취만(Nitschmann)과 도버(Dober)입니다.

신발 두 켤레만 있어도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다짐한 20대 후반의 두 젊은이들이 독일 함부르크 항구에서 배를 타고 선교지를 향해 떠나는 날, 전송 나온 가족들과 믿음의 형제들은 손에 손을 잡고 눈물이 고인 찬양으로 저들을 환송했습니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그의 고난에 대해 상급이 있을 지어다(May the Lamb that was slain receive the reward of his suffering)"라는 찬양으로 눈물의 환송식을 가졌습니다.

데이비드 니취만(David Nitschmann:왼쪽 사진)과 요한 레오나드 도버(Johann Leonard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사범대학교 교수)

스마트 폰 시대

90년대 후반에 셀폰이 일반화되기 시작할 때를 기억한다. 유행 따라가기에 늦고 기계에 둔한 나는 셀폰이 필수품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셀폰 구입을 미루고 있었다. 교회 교사가 서툰 프리웨이 운전을 하고 다니는 내가 불안하다고 셀폰을 사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꽤 꺼지치 않아서 마지못해 셀폰을 샀었다. 그 셀폰이 이제 말 그대로 똑똑한 전화(스마트 폰)로 발전해서 내게도 요즘에는 없으면 정말 불편할 것 같은 필수품이 되었다.

스마트 폰은 모르는 길을 찾아가고 떠나 프리웨이가 막힐 때 이리 저리 샅샅이 인도해주는 GPS 부터 출장길에 어디서나 학교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가까운 곳에 어느 식당이 있는지, 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지까지 참으로 다양하게 똑똑한 전화 노릇을 잘하고 있다. 이전의 셀폰의 주요기능이 통화였다면 스마트 폰은 손놀림 하나에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니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다. 그러나 스마트 폰이 가져온 많은 단점도 생각해볼 수 없다. 먼저 스마트 폰은 우리 삶에서 점점 친밀함을 빼앗아가는 것 같다. 전화를 하게 되면 혹시 바쁜 시간에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서로를 향한 배려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이제는 음성을 통한 전달보다는 스마트 폰을 통한 감정이 배제된 메시지 전달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된다. 이모티콘이 있어서 메시지에도 표준화된 감정표현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사람의 음성이 전달하는 따뜻함이나 위로를 담아낼 수 있을까?

이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는 어느 집사님은 아들하고 말하면 자꾸 충돌하니까 아예 카톡으로 대화를 한다고 하셨다. 물론 말 할 때마다 얼굴을 붉히고 목소리가 올라가서 관계가 더 어려워진다면 카톡으로 꼭 필요한 대화만 나누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감정이 배제된 차가운 메시지 전달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가 아닌 기계적인 의사전달이 될 것이다.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더라도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이 두 사람을 더 가깝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또 스마트 폰은 일중독, 게임중독을 부추기는데 한 몫을 담당한다. 나도 가족끼리 가끔 만나 시간을 보내다가도 혹시 급한 메시지가 있을지 싶어서 메시지나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딸에게 종종 지적을 당하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스마트 폰 때문에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구분하지 못하고 늘 일에 몰입해 있는 듯한 느낌이다. 메시지가 온 것이 보이는데 답글을 안 보낼 수도 없고 전화를 꺼버리지 않는 한 계속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요즘 젊은 세대는 I-disorder라는 병명이 생길만큼 인터넷기기 의존도가 높아져 교회에 갈 때도 성경책을 들고 가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 폰으로 말씀을 본다. 곧 인쇄된 성경책이 사라지는 세대가 오는 것은 아닐까. 일년에 한 번 강의 시간의 연장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자연이 아름다운 조용한 곳으로 침묵 훈련을 하러 간다. 두 시간 정도 스마트 폰을 꺼버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하면 젊은 학생들은 외부와 연결이 단절된 그 시간을 힘들어하기도 한다. 아침에 눈뜨면 바로 손에 쥐는 것이 스마트폰이고 잠자리에 들 때 마지막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스마트폰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똑똑한 전화의 유익한 기능을 잘 사용하면서 전화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우리가 전화를 다스릴 수 있을지 많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다.

이메일: lpyun@apu.edu

조성근목사 기도성회 일정

조성근 목사 방송설교 보기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튜브 조성근 목사 '세상을 이기는 지혜-솔로몬'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차 검색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



20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1일 ~ 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1월 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기도성회 1월 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1월 3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1월 8일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1월 11일 (함평동인교회) 남부시절 재직부흥회 1월 16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월 22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월 1일 LA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목사) 2월 2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월 9일 GST 신학생훈련(34차) 2월 15일 사물산신교회(배만석목사) 2월 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월 22일 신도철 철야기도회(GST) 2월 23일 동중교회(윤성호목사) 2월 27일 백석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	3월 1일 예수비전교회(박창홍목사) 3월 5일 총신대학교 신학생수련회 3월 9일 (함평동인교회) 재직부흥회 3월 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3월 23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3월 29일 신도철 철야기도회(GST)	4월 6일 ~ 8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4월 13일 ~ 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4월 20일 ~ 22일 안산 시민교회(이성관목사) 4월 23일 캠퍼스대학교 대학원 재물 4월 26일 신도철 철야기도회(GST)	5월 27일 ~ 29일 화평교회(이재욱목사)	6월 1일 ~ 1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6월 17일 소망교회(이정현목사) 6월 18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6월 24일 ~ 27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6월 31일 신도철 철야기도회(GST)	7월 6일 ~ 1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7월 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7월 20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7월 26일 신도철 철야기도회(GST) 7월 27일 ~ 29일 천마산기도원(유광석목사)	8월 3일 ~ 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8월 9일 ~ 12일 나사렛성결교단 연합성회 8월 17일 ~ 20일 GST 신학생훈련(35차) 8월 21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9월 1일 ~ 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9월 19일 침윤교회(김대석목사) 9월 6일 ~ 8일 안산 시민교회(이성관목사) 9월 9일 ~ 11일 제자교회(유종국목사) 9월 14일 ~ 17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10월 21일 ~ 23일 풍성교회(박경순목사) 10월 27일 신도철 철야기도회(GST)	11월 1일 ~ 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11월 1일 ~ 9일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11월 2일 침피중요교회(김영우목사) 11월 10일 오신리 최자성기념 금식기도원 11월 13일 우리들교회(김호경목사) 11월 1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1월 19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11월 26일 신학생 철야기도회(GST)	12월 3일 ~ 6일 GST 32nd 신학생 훈련 12월 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2월 17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12월 20일 ~ 2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2월 21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한재신목사) 12월 23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1월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월 17일 양문교회(정영교목사) (극동방송 소망의기도 치유집회) 2월 21일 ~ 23일 오명이어교회(김형제목사) 2월 24일 블레시 성서교회(고영수목사) 2월 25일 캠퍼스대학교 대학원 재물 2월 28일 신도철 철야기도회(GST)	3월 15일 ~ 7일 포일남교회(김영주목사) 3월 13일 백석대 실천신학대학원 강의 3월 13일 ~ 16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3월 19일 ~ 22일 송현교회(김학기목사) 3월 23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3월 26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4월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4월 2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4월 6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4월 6일 LA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목사) 4월 6일 LA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목사) (마라톤-블레시 집회) 4월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4월 16일 ~ 19일 영동제일교회(노태진목사) 4월 19일 GoodTV '멘토특강 희망드림' 4월 20일 ~ 22일 수정교회(조일래목사) 4월 24일 ~ 26일 대성교회(홍기용목사) 4월 27일 민족복음화 부흥사역연수 강의 4월 30일 신도철 철야기도회(GST)	5월 17일 양문교회(정영교목사) (극동방송 소망의기도 치유집회) 5월 21일 ~ 23일 오명이어교회(김형제목사) 5월 24일 블레시 성서교회(고영수목사) 5월 25일 캠퍼스대학교 대학원 재물 5월 28일 신도철 철야기도회(GST)	6월 15일 ~ 7일 포일남교회(김영주목사) 6월 13일 백석대 실천신학대학원 강의 6월 13일 ~ 16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6월 19일 ~ 22일 송현교회(김학기목사) 6월 23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6월 26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7월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7월 2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7월 6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7월 6일 LA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목사) 7월 6일 LA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목사) (마라톤-블레시 집회) 7월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7월 16일 ~ 19일 영동제일교회(노태진목사) 7월 19일 GoodTV '멘토특강 희망드림' 7월 20일 ~ 22일 수정교회(조일래목사) 7월 24일 ~ 26일 대성교회(홍기용목사) 7월 27일 민족복음화 부흥사역연수 강의 7월 30일 신도철 철야기도회(GST)	8월 1일 ~ 3일 영신교회(이영무목사) 8월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8월 14일 ~ 21일 GST 미션시차(캄보디아) 8월 28일 신학생 철야 송년(안양) 8월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송구신예배

동성안수, 동성결혼집례 거부

PCUSA-NCKPC 총회장 담화문 발표

미국장로교(PCUSA)가 동성결혼 허락을 발표한 이후 교단 내 한인교회(NCKPC, 총회장 배현찬 목사)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지속적인 대처를 계속하고 있다.



을 발표하고 6월 16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 44회 전국총회에서 PCUSA의 동성애와 결혼정의에 대한 행동결의문 공포를 주지시켰다. 이 담화문은 "동성애 및 동성결혼에 관해서는 해당 당회와 담임목사에게 자유로운 재량권을 주는 교단법의 양면성에 의거해, 한인교회들은 동성안수와 동성결혼집례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화문은 또 "교단 내에는 다양한 신앙그룹들이 있으며 미국장로교단은 전통적으로 문화현상과 사회정의에 민감한 의식을 가지고 성서에 기초한 신앙고백을 분명히 하

고 있다. 오늘날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교단의 포용성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동시에 교단 내 한인교회들은 성서적 전승에 근거한 신앙적 입장을 확고히 할 것을 재천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400여 한인교회 가운데 타 교단 이적을 고려하는 교회는 10개 교회 미만이며, "절대 다수의 교회들은 개교회의 안정적 성장과 교단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교단 내 복음주의적 그룹들과 연대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인교회 총회는 교단 내에서 격상된 정치적 위상과 영향력으로 인해 교단 내에서 갈수록 주목을 받으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원정 기자)

미주한인사회의 원로 2명 별세

월광 박영창 목사



한인교회와 LA 한인사회의 원로이자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투사로서 한평생 민족을 위해 헌신한 박영창 목사가 지난 7월 28일 오후 8시 자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100세.

박영창 목사는 지난 1939년 일본 국회의사당에서 신사참배 반대 전단을 뿌리다 체포돼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다. 도미 후 대한남가주교회를 설립하고 LA월남목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오바마 봉사상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4000시간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 YMCA 연합회 간사 및 협

동총무, 명지대학교 교목실장, 미주광복회, 남가주이북5도민회, LA한인회, LA평통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일생을 베풀며 살았던 목회자라고 칭송하고 있다. 저서로는 '성웅 마하트마 간다' '정의가 나를 부를 때' 등을 남겼다.

1915년 5월 28일 평안북도 영변에서 태어난 고인은 연세대학교, 장로회신학교를 졸업했다. 1969년 미국에 왔으며 슬하에 1남3녀를 두었다. 부인 박정애 권사는 2주 전인 지난 15일 94세로 별세했다.

유가족으로는 장남 박영남 목사, 자부 박귀자, 장녀 전그레이스(사위 전성환), 차녀 이해경(손자 이경일), 삼녀 이은미(사위 이원준)와 손자 6명, 손녀 3명, 9명의 증손자가 있다. 장례예배는 4일 치러졌으며 장지는 헐리우드 포레스트 론(6300 Forest Lawn Dr, LA).

(박준호 기자)

김사무엘 목사



남가주교계 원로이자 산돌교회 담임이었던 김사무엘 목사가 지난 7월 31일 오전 11시 30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80세. 고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재회총회장과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그리고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평생 믿음으로 천국을 흠모하며 충성했다. 천국환송예식은 8월 5일 오후 1시30분, 부활대방예식은 같은 날 오후 2시30분에 글렌데일 포레스트론에서 가졌다. 유가족으로는 장남 예능, 장녀 크리스틴, 차녀 레이첼 등이 있다.

(박준호 기자)

부터 11시 30분까지 LA비전교회(담임 김대준 목사·520 S. Lafayette Park Place, #200, LA)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2015년 하반기 선교 세미나 일정과 강사 및 주제는 다음과 같다.

- △8월: 8일, 15일, 22일, 29일-채동선 전도사(마음이가난한사람들의교회) "그리스도의 향기" △9월: 12일, 19일, 26일-유영택 선교사(C국) "예수 그리스도의 참예자" △10월: 10일, 17일, 24일, 31일-김대준 목사(LA비전교회) "미션 능력 기도" △11월: 14일, 21일, 28일-유혁 목사(예수전도단 나사참선교회) "하나님의 음성 듣기" △12월: 12일, 19일-류시하 목사(월드미션대학교수) "기독교 선교 교육"

GMCC 선교회는 일 년에 두 차례 선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세미나 수강료는 없다.

문의: 안혜숙 간사(213)819-0047, 박노현 간사(661)208-1602 (기사제공: GMCC선교회)

GMCC 하반기 선교세미나 개최

8월 8일-12월 19일 LA비전교회

작은 교회의 선교사역과 자비량 선교사를 돕는 GMCC(Great Mission & Commandment Center, 대표 현병훈 장로)가 실시하는 2015년 하반기 선교세미나가 8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열린다. 선교사로서의 첫 관문 역할을 감

당하고 있는 GMCC의 세미나는 부르심을 받았으나 어떻게 해야 선교사가 될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 안식년 중인 선교사들, 선교단체나 선교사들을 위한 후원자들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세미나는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남부개혁신학교와 월드미션대학교는 학사정보교류 및 도서관 이용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SRTCS LA-WMU 학사정보교류 및 도서관이용 협정

SRTCS '...교회론' 윤철원 박사 특강

남부개혁신학대학/대학원(SRTCS, 총장 Dr. Terry Curtis)과 월드미션대학교(WMU, 총장 송정명 박사)는 7월 31일 오후 4시 WMU 도서관에서 학사정보 교류 및 도서관 이용 협정을 맺었다. SRTCS는 미국 남부 휴스턴에 본교를 둔 한인인 세운 신학대학교로서 LA에 분교를 마련하고 지난해 4월 5일에 개교했다.

WMU는 "세계 선교적 사명을 같이 하는 신학생 양성에 남부개혁신

학대학(원)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주님의 대 위임명령 리더십을 이루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부개혁신학대학(원)(2975 Wilshire Blvd. #415)은 많은 장학금을 제공하며 학사(B.Th), 석사(M.Div., M.B.S.), 박사(D.Ics, D. Miss, D.Min) 과정이 있다.

한편 지난해 28일 남부개혁신학대학원 한국신약학회 회장 윤철원 박사 초청 특강을 '사도행전의 교회

론'이라는 주제로 열었다. 윤철원 박사는 "기독교(Christology)를 논할 때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관한 언급도 큰 줄거리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한 부분으로는 예수도 교회도 제대로 해명하기 곤란하고 역부족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해할 때 내러티브 속에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묘사되는 것을 집중해 이해하려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도행전에서도 교회는 어떤 모습을 견지해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이며 세부적으로 묘사해준다"고 말했다.

윤 박사는 "사도행전은 전적으로 교회를 위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으며, 교회는 어떠한가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교회는 성령과 함께 하는 조직이다. 성령은 교회와 성도를 한 곳에 쥘려고 애써 잊지 않게 한다. 예수가 걸어갔듯이 교회도 그 걸음을 반복한다. 미주한인교회와 한국교회의 걸음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어야 한다. 한 순간도 지체되거나 거역할 수 없는 교회가 지닌 사명이 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교회가 된다. 물론 전도하러 나가는 것만으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전도는 생명을 제공하는 것이며 구원에 참여하도록 타자를 주님께 초청하는 것"이라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7월 월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페루GDP센터 방문 12명 17일 출발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7월 월례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전희수 목사) 7월 정기예배가 지난 30일 퀸즈침례교회(담임 박진하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8월 17일 출발하는 페루 선교 방문에 대한 마지막 논의가 진행됐다. 예배는 유상열 목사 인도로 기도 김민한 장로, 설교 이종명 목사, 합심기도 조상숙 목사, 축도 박진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종명 목사는 "유언(행1:8)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하는 유언은 마음속에서 품었던 말을 하게 된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가시기 전 하신 마지막 말씀인 지상대명령으로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가 기아대책을 통해 아동사역을 하는 것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한국기독교 초

기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의 생애를 설명했다.

이 목사는 "한국에서 이슬람 포교가 날로 극대화 가는 중에 있는데 이슬람처럼 우리도 목숨 걸고 선교할 수 있는가" 묻고 "작은 돈으로 한 어린이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냄으로써 주신 사명, 말은 소명 잘 감당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자"고 역설했다.

회의는 전희수 목사 사회로 개회기도 후 업무보고, 회계보고, 안건토의로 진행됐다.

이날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페루 아동선교센터(GDP) 방문에 대해 최종 확인했으며 간사 2명을 포함 총 12명이 출발하는 이번 선교팀들은 다음 주 최종 모임을 갖기로 결의했다.

이번 페루방문에서 팀원들은 집짓기(1채 소요비용 5천 달러)를 하게 되며, 각 교회 및 개인이 후원하는 아동들을 만나게 된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매월 마지막 목요일 월례회를 갖고 있으며 8월 정기 모임에서는 페루 선교 보고도 있게 된다.

(유원정 기자)

(1면에서 계속) 피오리나 전 후레 팩카드 CEO 역시 대선 경쟁에 도전장을 내민 당시에는 인기를 받았으나, 한자리 수 수치의 지지율만 받고 있고, 랜드 폴 후보 역시 지지율보다(3%)는 반대율(44%)이 너무 차이가 나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번 월디지가 실시한 설문에서 가장 이례적인 결과는 바로 과거 복음주의 진영의 지지와 후원을 받았던 후보들의 몰락(?)이다.

마이클 허커비 전 주지사만이 우선순위에 4% 지지를 받았을 뿐, 릭 샌토럼 후보는 0% 그리고 안식교인으로서 2016년 대권 경쟁에서 폭풍의 핵으로 부상될 것이라는 벵카스 후보 역시 0%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설문에 참가한 복음주의 진영의 리더들은 허커비 후보가 복음주의를 알리는 데는 전력을 쏟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24%).

한편 '2016대선 후보 선�택에서 우선적으로 반드시 다루어질 3

가지 핵심 정책들을 묻는 설문에, 복음주의 진영의 리더들은 1)미국 대 종교적 자유 보장(69%) 2)낙태 반대(56%) 3)미 외교 정책(27%)과 연방법원 대법관 임명(25%)을 손꼽았다. 그리고 이번 정책에는 14%가, 오바마 케어에는 3%만이 응답했다.

이번 설문에 같이 참여한 조지바나(바나리서치 설립자, 현 American Culture and Faith Institute 사무국장)는 복음주의 진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적 자유가 최우선순위로 선정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해석한다.

"보수, 복음적인 크리스천들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인 종교적 자유는 현재 미국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설문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로, 많은 사람들은 만약 종교적 자유가 축소되거나 심지어 사라지게 되면, 모든 자유들마저도 사라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라면서, 왜 복음주의 진영에서 그토록 종교적 자유를 수호하려고 하는 정

당성을 설명해주고 있다.

결론으로, 복음주의 진영의 리더들은 복음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주요 정책들을 결정하고 다룰 유능한 젊은 정치인을 '2016대선 공화당 후보로 내세우고 있다. 허커비나 샌토럼 후보의 몰락(?)은 신앙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어느 영역보다도 전문성과 세밀함이 요구되는 백악관서 실제 수행 능력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아직까지 실제 대선 본선에서 클린턴 후보와 경합하게 될 경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막강한 후보가 없다는 것이 이번 설문문의 결과이다. 따라서 클린턴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젊고 이민자로서 복음주의적 신앙을 가진 루비오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공화당 예비경선에서의 혼선과 무리한 내부 진통을 줄여보자는 복음주의 진영의 본심이 드러난 설문 결과로 분석된다.

(4면에서 계속)

그녀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로마이었던 이곳 폼페이에 거주했다. 요즈음으로 본다면 폼페이는 우리의 제주도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 수려한 환경과 시원하고 맑은 공기는 휴양지로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폼페이에 살던 중, 아들과 함께 AD79년 8월24일 베수비오 화산의 재앙을 만났다. 당시 폼페이에는 약 3만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이날은 폼페이 사람들이 불의 신 불칸(Vulcan)을 섬기는 축제의 날이었다. 불을 섬기는 축제 중에 아이러니하게도 폼페이는 불로 망하고 말았다. 보통 이태리의 8월은 더위가 최고로 치닫는 때니 이때 화산이 폭발했다는 것은 뜨거운 화산재, 또는 유독가스가 무더운 기운을 더욱 상승하게 만들었음을 의미한다.

폼페이 뒤에는 두 개의 산, 즉 베수비오(Vesuvio1, 277m)와 솜마 산이 쌍둥이처럼 있는 데 불을 뿜은

것은 솜마(Somma1, 132m)산이었다. 그런데 여찌 그 많은 화산재가 12km나 떨어진 폼페이까지 날아와 이 도시를 수 미터의 두께로 덮어버렸을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역사가 아닐까 싶다. 화산으로 인해 약2천여 명이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목숨을 잃어갔다.

그런데 폼페이가 화산재와 가스로 멸망하는 광경을 똑똑하게 목격했던 사람이 있다. 그는 해군 사령관으로 마즈노 곳(사도바울이 하선했던 보도를 근처)에 있었던 대 플리니우스(Plinius)였다. 그는 검은 연기와 함께 화산재가 비 오듯 쏟아져 내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구조하려고 가까이 다가갔다가 유독가스로 사망하고 말았다. 함께 있었던 그의 조카 소플리니우스는 당시 18살의 나이로 그 처절한 광경을 자세히 기록했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영국인 리튼 발위가 폼페이 최후의 날을 썼다.

폼페이는 아주 방탕했던 도시다.

(5면에서 계속)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영화산업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야할 당위자로 주장한다.

4)역설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와 영화문화: 이는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를 화해할 수 없는 양자 간의 끊임없는 싸움으로 이해한다. 이 입장에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요 문

화는 문화이다. 니버는 이런 유형의 대표자가 사도 바울, 루터 그리고 키에르케고르 등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안목에서 볼 때, 영화가 기독교에 대해 비하하거나 부정적인 암시를 표현할 때, 기독교는 계속 비판하며 대립하는 관계가 된다.

5)영화문화의 변혁자인 그리스도. 이 유형의 대표자는 어거스틴, 칼빈, 존 웨슬리 등이다. 이 입장에서

의하면 세계는 구속(redemption)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인간 문화의 문제는 변혁의 문제이다. 세계는 배격되어서도 안되고 소홀히 여겨져도 안된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 주장된 그리스도는 죽음과 죄에 예속되어 있는 인간을 구속하시는 것일 뿐 아니라 문화 속에 사는 인간 생활을 계속적으로 성화시키고 변혁시키시는 분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메일: yunsuklee@hotmail.com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목회자축구단 단원모집

뉴욕목회자축구단(단장 한준희 목사)에서 단원을 모집한다. 목회자 축구단의 연습시간은 매주 화,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이며 장소는 Kissena Corridor Park 인조잔디축구장(Kissena Blvd & Booth Memorial Ave). 대상은 목사, 전도사, 신학생(나이 관계없음)으로 8월말까지 등록하는 분에게는 무료로 유니폼이 주어진다.

▲문의: (917)566-5002(한준희 단장) (917)617-0170(임용수 총무)

광복 70주년 기념 미주신뢰포럼

신뢰회복국민연합 미주본부와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 뉴욕지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광복 70주년 기념 미주신뢰포럼 시국강연 "건국리더십" 및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 영문판 출판기념회가 8월 15일(토) 오후 8시 플러싱 금강성 식당에서 열린다. 강사는 유근일 박사, 인보길 선생, 가수 남상국이 출연한다. 오후 7시부터는 저녁식사가 있다.

▲문의: (201)637-7168, (718)539-5700

제 1회 한국 국가기도운동 기도자 성회

제 1회 한국 국가기도운동 뉴욕지부가 주최하는 "교회와 미국과 대한민국(조국) 위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자 성회"가 8월 16일(주) 오후 6시부터 17일(월) 오후 1시까지 라마나우 기도원(973-697-4821)에서 열린다. 회비는 일인당 50달러로 1박2일(3식)이 제공된다. 개인 세면도구는 각자 준비해야 한다. 성회는 김희복 목사, 윤오성 목사, 한기홍 목사가 인도한다.

▲문의: (646)270-9037

행복한 가정 부흥회

뉴욕 아름다운교회(담임 황인철 목사)가 주최하는 행복한 가정 부흥회가 8월 21일(금)부터 사흘간 "행가래: 행복한 가정이 오는 도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강사는 송길원 목사. 금, 토 오후 8시 "행복에 입맞춤하다", "행복으로 가는 길", 주일 오전 8시30분, 9시 55분, 11시30분 "행복 비타민".

▲문의: (516)349-5559

미동부 한인친선 탁구대회

뉴욕교협(회장 이재택 목사)과 뉴욕목사회(회장 이만호 목사)가 후원하는 뉴욕대한체육회 주최 미동부 한인친선 탁구대회가 9월 7일(월)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린다. 종목은 일반부, 장년부, 청소년부, 개나리초(초보자)이며 참가비는 단체 90달러, 개인은 40달러에서 15달러까지 종목별로 차이가 있다. 상금도 1위(400달러)부터 3위(50달러) 종목별 순위별로 다르다. 1차 신청 마감은 8월 24일, 2차는 31일까지. www.pingpongny.com

▲문의: (718)321-2030

제 70주년 8.15 광복절기념 나라사랑 경축음악회

제 70주년 8.15 광복절기념 나라사랑 경축음악회가 8월 16일(주) 저녁 6시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린다. 이 음악회는 동 교회가 여러 단체들과 협력해 개최한다.

▲문의: (718)762-5756/2525



패밀리터치 서머캠프에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호산나대회, 연합 가능성 보였다

뉴저지교협주최 최다인원 참석, 강사 한기홍 목사

뉴저지교협(회장 이병준 목사)이 주최하는 연합성회인 2015 호산나복음화대회가 7월 29일부터 3일간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를 강사로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이병준 목사는 "동성애 문제와 최고신앙이 무너져 성경적인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고수하기 힘든 이 시기에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내 교회, 내 신앙만을 강조하는 이기적인 모습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며 "이번 연합집회에 참석해 기울어져 가는 배를 보듬어 함께 천국가자"고 말했다.

"아버지여! 이 나라와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왕상8:28)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복음화대회는 미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의 충격 여파가 만연한 가운데 동성결혼은 죄라고 워싱턴DC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담대히 밝힌 한기홍 목사가 강사로 초청됐다.

첫날 집회는 필그림교회 경배와 찬양에 이어 유재도 목사 사회로 개회선언 이병준 목사, 기도 안민성 목사, 성경봉독 윤석래 장로, 찬양 필그림교회 성가대, 말씀 한기홍 목사, 헌금찬양 뉴저지장로성가대, 헌금기도 박순진 목사, 광고 이준기 목사, 합심기도 이경민 목사, 축도 길용남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기홍 목사는 LA에서 동행한 8명의 은혜한인교회 중보기도팀이 기도하는 가운데 양춘길 목사의 소개로 강단에 올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주역이 됩시다"(행 3:1-10)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베드로와 요한같이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기 위한 3가지 조건을 전했다.

한 목사는 첫째, 변화를 받은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둘째, 기도하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셋째, 협력하는 사람이



2015 호산나복음화대회에서 성도들이 손을들고 기도하고 있다.

통해 사람이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둘째 날 집회는 가스펠밴로윅교회 경배와찬양에 이어 김중국 목사 사회로 양춘길 목사 기도, 강영안 장로 성경봉독, 뉴저지연합교회 성가대 찬양, 뉴저지 권사합창단 찬양, 말씀, 뉴저지부부합창단 헌금찬양, 성령경 목사 헌금기도, 이준기 목사 광고, 이준기 목사 합심기도, 김해중 목사 축도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기홍 목사는 '환난 날에 응답받 는 비결'(시50:1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그 해답을 기도와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한 목사는 먼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 둘째 회개하는 기도의 중요성, 셋째 승리하는 예배로 새 힘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셋째 날 집회는 사랑의글로벌비전교회 경배와 찬양에 이어 이의철 목사 사회로 기도 최춘호 목사, 성경봉독 문중구 장로, 찬양 한소광교회, 좋은이웃교리, 말씀, 헌금찬양 뉴저지남성목사합창단, 헌금기도 이은혜 목사, 광고 이준기 목사, 합심기도 육민호 목사, 비전선언문 낭독 이병준 목사, 축도 신의철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기홍 목사는 "비전을 가지고

망글까지"(창37:5-11) 제목의 설교



뉴저지 목사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저지목사회 새 회장 양춘길 목사

제 6회 정기총회, 부회장 유재도 목사

뉴저지 한인목사회(회장 박찬순 목사)가 지난 3일 오전 11시 필그림교회에서 제 6회 정기총회를 갖고 회장에 부회장 양춘길 목사(필그림교회 담임), 부회장에 유재도 목사(망글교회 담임)를 선출했다. 두 목사는 모두 뉴저지 교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새 회장 양춘길 목사는 "먼저 회원 목사님들을 잘 섬기겠다. 목사님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다"면서 "뉴저지 목사회와 교회협의회가 잘 협력해 너무나 감사한데, 앞으로도 잘 협조해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힘쓰겠다"고 당선 인사를 했다.

이날 참석한 뉴저지교협 회장 이병준 목사는 "호산나대회를 앞두고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로 준비하는 등 뉴저지 지역에 기동운이 확산되고 있다"며 "존경받는 양 목사님이 회장으로 섬기게 돼 더욱 연합운동이 확산될 것으로 믿는다"고 소망했다.

뉴저지 한인교회는 최근 뉴저지교협 주최로 열린 호산나대회가 대회 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많은 참석자가 참여한 집회가 됐고, 뉴저지 지역 16개 교회가 연합하는 '러브 뉴저지(LOVE NJ) 운동'이 활성화 되는 등 뉴저지 한인교회의 기동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양

에서 "기적은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며 "세계를 향한 꿈을 꺾어 한다, 은혜받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고난대학을 졸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연합집회가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열리는 데 비해 이번 호산나대회는 강사의 스케줄 상 수요일부터 시작돼 금요일 마치고 된 것이 오히려 플러스가 됐다. 지역교회의 수요예배와 금요일예배를 함께 드리는 양상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한 집회가 됐다.

또한 대회기간 중 헌금을 모아 10명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한다. 광고 후 합심기도 순서를 넣었으며, 대회 마지막 날에는 선언문도 발표했다. 둘째 날과 셋째 날 설교 전 찬양을 교회 성가대와 단체가 연속으로 찬양했다.

(유원정 기자)

패밀리터치 SMART Kids 서머캠프 성료

가정사역기관 패밀리터치(대표 정진숙 박사)에서 주관한 SMART Kids 서머캠프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된 12명의 학생이 수료했다.

SMART Kids는 Skills(능력), Management(자기관리), Awareness(자기인식), Responsibility(책임감), and Trustworthiness(신뢰성)를 겸비한 학생들을 길러 내고자 학습능력과 사회성, 감정조절 능력을 동시에 강조하는 CASEL(Collaborative of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프에서는 참가한 어린이들이 영어와 수학의 선행 학습 및 책임감과 작문을 공부했으며, 스티븐 코비사에서 개발한 "Leader in Me" 프로그램을 통해 리더십 개발과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는 7가지 습관을 익혔다.

또한 어린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자기알아가기, 감정 이해하기, 자제력, 소통능력, 공감능력 등을 배우고 실습했다.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Worldwide Church Directory: 동부(NY, NJ)교회.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churches like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리빙스톤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etc.



사랑의빛선교교회에서 열린 이찬수 목사 초청 부흥회에서 이찬수 목사가 합심기도를 인도하고 있다

‘회복’ ...말씀을 사모하라

사랑의빛선교교회 이찬수 목사 초청 부흥회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윤대혁 목사)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초청 부흥회를 개최했다.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윤대혁 목사의 사화로 열린 첫날 집회는 강령장 장로가 기도했으며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했다. 이찬수 목사는 ‘하나님과 대결하는 자의 어리석음’(은1:1-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 숫자와 교회의 예산으로 일하지 않으니며 준비된 한 사람들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강조하고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고의적으로 어기고 다시스로 내려간 것은 니느웨에 대한 용서가 없어서였다. 니느웨에 대한 상한 감정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에 용서를 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상태는 영적침체현

상으로 빠져드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요나의 불순종은 자기상식이 강해서 나오게 된 것이며, 이는 직분이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은 어떤 일이 잘 풀릴 때 복을 받는다는 것이다.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있다 보니 무엇이 축복이고 저주인지 모르게 된다. 기도하지 않는데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저주다. 이번 집회를 통해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 성경을 손에 드는 계기가 되어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찬수 목사는 둘째 날 새벽집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눅10:38-42), 저녁집회는 ‘신뢰와 행복’(스3:10-13), 주일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삼하9:6-8)라는 제목으로 각각 설교했다. <박준호 기자>



LA정신건강국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안정영 코디네이터가 강의하고 있다

KPOP스타 존추 & 에스더김 출연

파사데나장로교회 BBQ & Music 성황

파사데나장로교회(PPC 담임 최호년 목사)가 주최한 BBQ & Music 행사가 7월 22일 오후5시30분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KPOP 스타 시즌4 탑10에 진출했던 존추 형제와 에스더김 자매가 출연해 찬양과 팝송 등을 선사했다.

최호년 목사는 “PPC가 매년 BBQ & Music 행사를 열어왔다”며 “이번 행사의 본질은 지역을 섬기는데 있다. PPC는 스페니시 회중, 미국 회중 한국 회중 등 3개 회중이 함께 모여 있다. 3개 회중이 함

께 한 몸이 돼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에스더김 자매는 “지역을 섬기는 자리에 함께해서 기쁘다. 부족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돼 큰 은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추 형제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좋은 무대를 갖게 돼서 좋았고 오신 분들과 재미있는 시간 갖게 돼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파사데나장로교회에서 열린 BBQ & Music 행사에서 한국에서 열렸던 오디션 프로그램 KPOP스타 시즌4에 참가했던 존추와 에스더 김이 공연하고 있다

마음의 감기 ‘우울증’ 재발 가능성 높다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주최 세미나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주최 세미나가 ‘마음의 감기 ‘우울증’ 그 원인, 증상과 진단’이라는 주제로 7월 30일 오전 10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강사로 나선 안정영 LA카운티 정신건강서비스 코디네이터는 “우울증은 미 전체 인구 중 3명당 1명꼴로 한인 60%이상이 우울증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우울증은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다. 하지만 치료 시 10명중 9명이 완전 회복되지만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안 코디네이터는 “우울증을 잊기 위해 남성의 경우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며, 여성은 소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 효과만 가져다 줄 뿐”이라고 말하고 “우울증의 특징으로 △우울증상이 2주 이상 오래가는 경우 △식욕과 수면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적 고통이 심한 경우 △사회적, 직업적 역할 수행에 심각한 지장이 있는 경우 △자살사고가 지속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미주두란노목회자아버지학교

미주 두란노 목회자아버지학교가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에서 오는 10일(월) 오후4시30분부터 9시30분, 11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16일(주)과 30일(주) 오후 4시30분부터 9시30분에 갖는다.

▲문의: (213)268-3033/석종민 목사, (323)404-3147/박세현 목사

베데스다대학(원) 총동문회 총회

베데스다대학(원) 총동문회(회장 노석 목사)는 동문회 총회를 10일(월) 오후 6시 베데스다대학(원) 체펠실(730 N. Euclid St, Anaheim)에서 갖는다.

▲문의: (213)327-8095/총무 박정기 목사

광복절기념 북가주 교회전선 배구대회

제38회 광복절기념 북가주 교회전선 배구대회가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담임 최승환 목사) 주최로 8일(토) 오전 9시 캠벨 커뮤니티 센터(1 W Campbell Ave C31, Campbell)에서 열린다.

▲문의: (408)257-5444

광복 70주년 성가찬양제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회장 심명구 목사)가 주최하는 광복 70주년 제18회 경축 성가찬양제가 16일(주) 오후 4시 세리토 스동양선교교회(담임 방상용 목사 12413 E. 195th St)에서 열린다.

▲문의: (714)351-0124/총무 최국현 목사

콘티넨탈싱어즈 초청 찬양집회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는 한국콘티넨탈싱어즈 초청 찬양집회를 7일(금) 오후 7시45분에 갖는다.

▲문의: (562)691-0691

선교사 초빙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는 선교사를 초빙한다. 선교지는 방글라데시이며 신학자격은 신학과정을 마치고 올해 안에 파송될 수 있는 개혁주의 신앙을 소유하며 세계선교의 소명이 투철한 자, 제출서류는 △이력서 및 가족사진 △개인정보 및 선교비전 △목회자 2인 추천서 △선교 CD 2개이며 제출마감일은 9월 15일(화)이다.

▲문의: (818)549-9191

교역자 청빙

안다육장교회(담임 지윤성 목사)는 영어 대학부 청년부를 담당할 파트타임 사역자를 모집한다. 제출서류는 신학교 졸업증명서, 이력서, 추천서, 자기소개서, 영어실고 등이다. 제출마감은 9월 22일.

▲문의: (818)249-2871

‘Wow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주제

한인기독교상담소 주최 정신건강세미나

한인기독교상담소(소장 김화자 박사)가 주최한 정신건강세미나가 ‘Wow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주제로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개최됐다.

7월 30일에 열린 세 번째 세미나는 백미경 선생이 강사로 나선 가운데 ‘말이 잘 안 통해요!’라는 주제로

열렸다.

백미경 선생은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고민은 △말 잘 듣고 착하던 아이가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변덕이 죽 끓듯 하고, 충동조절이 안될 뿐만 아니라 성적이 떨어지는 현상 △아침에 깨우기 힘들고 재촉하면 화를 내고 늦게 일어나서 왜 안깨냐고 화를 내는 행위 △어울

리지 않았으면 하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는 것 △질문에 단답형 대답을 하는 행위 등”이라 말했다.

그는 “사춘기의 특징은 생물학적, 호르몬적, 육체적, 사회적 변화를 겪는다. 또한 성호르몬의 증가로 아동기에 비해 변덕, 흥분, 공격성, 폭력성이 증가하며 사소한 자극에도 혼란스러워한다. 그리고 자아정체감이 혼란을 겪게 되고 가치 구분 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시간 개념이 부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모가 자녀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대화를 해야 한다. 건강한 대화는 자녀의 말을 잘

듣고 공감해주는 것이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그러나 부모가 노력하나 간다면 자녀와 부모 간 대화가 원활해질 것이다. 대화를 할 때 부모는 자신들의 말에 자녀의 미래가 좌우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인기독교상담소 정신건강세미나는 7월 16일 ‘내 속으로 날은 아이 맞아요?’, 22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게요!’, 그리고 8월 6일 ‘따나보내기 싫어요!’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한인기독교상담소에서 주최 정신건강세미나에서 백미경 선생이 강의하고 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

<h4>감사한인교회</h4> <p>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 오후 8:00(일)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4>나성순복음교회</h4> <p>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수-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4>나성영락교회</h4> <p>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일예배: 오후 7: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2:30(영년)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시(일)</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p>	<h4>나성제일교회</h4> <p>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일예배: 오후 7:30 수-금요예배: 오후 5:30(월-토) 주일학교: 오전 6:00(토)</p> <p>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Brea, CA 90004</p>	<h4>나침반교회</h4> <p>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월-금): 오전 5:30 영어예배(토):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p>		
<h4>남가주든든교회</h4> <p>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p> <p>Tel: (213)380-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soidrock@gmail.com</p>	<h4>열매교회</h4> <p>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목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213)380-0071, Cell: (213)215-8523 398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p>	<h4>남가주사랑교회</h4> <p>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집문예배: 오전 1:20 영아원(영스-KOC, 캠퍼스캠퍼스)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4>대흥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집문예배: 오전 1:2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ena CA 90248 www.dhpc.org</p>	<h4>동문교회</h4> <p>담임목사: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p> <p>Tel: (213)483-8625, Fax: (213)483-8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ygkpc.org</p>	<h4>디아스포라선교회</h4>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교회의 동쪽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p> <p>Tel: (213)559-7722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p>	<h4>드림교회</h4> <p>담임목사: 정영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영어예배: 오전 11:30 수-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626)993-0880, 082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p>
<h4>미주중앙교회</h4> <p>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p> <p>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4>미주평안교회</h4> <p>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 주일 5부예배: 오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p> <p>www.mjc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h4>빛과 소금의 교회</h4> <p>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Tel: (310)749-0577 3521 Lomita Ave., Torrance CA, 90505</p>	<h4>베델인인교회</h4> <p>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일예배: 오후 7:30(영년) 성일영어예배: 오전 11:00 대학원예배: 오후 1:00 영어예배: 오후 1:00(수-토) / 오후 7:30(일)</p> <p>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h4>복음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7: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h4>세계소망교회</h4> <p>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일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745-9191(CH), 사택: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4>요셉선교교회</h4> <p>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p>
<h4>얼바인침례교회</h4> <p>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00</p> <p>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h4>윌셔크리스천교회</h4> <p>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6:00</p> <p>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h4>은혜안인교회</h4> <p>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일) 은혜채기도회: 365일 24시간 온</p> <p>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4>주님의영광교회</h4> <p>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c.org</p>	<h4>좋은마음교회</h4> <p>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전 11:45 수-일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주일예배: 오전 6:00(토)</p> <p>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9-9259, Fax: (714)649-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66</p>	<h4>코너스톤 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www.corneston.tv.com / e-mail: pastor@corneston.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2</p>	<h4>토렌스조은교회</h4> <p>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년) 집문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후 8:00</p> <p>www.torrance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8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동성결혼 합법화 논리의 실체를 말한다

영화감독 김조광수(50)씨가 동성결혼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일보에 한국교회 동성예대책임위원회(본부장 소강석 목사)와 공동으로 3차례 동성결혼 합법화 요구의 배경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논리를 제시한다.

동성애자들(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요구하는 것은 미국처럼 동성결혼을 인정받으면 동성애자 및 동성커플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잠재우고 법적·사회적·문화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시인권위원을 맡고 있는 장서연 변호사 등 41명의 변호사들이 대거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해 지원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동성애자들 “헌법상 양성평등은 남녀가 아닌 성평등을 의미”=김씨 측이 서부지법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동성애자들의 핵심 논리는 간단하다. 혼인·가족 제도를 규정하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 혼인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동성결혼이 위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씨 측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헌법 조항에서 '양성'을 남녀평등이 아닌 성평등(gender equality)으로 해석했다. 이런 인식에서 '양성평등은 결혼제도 안에서 성평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일 뿐, 혼인이 1남1녀로만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 위에 '양성평등에 나오는 양성'은 혼인 당사자에 대한 표현이 아니다. “혼인의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는 현 상태에서 이성간의 결합만이 합헌적이고 동성간의 결합은 위헌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말한다.

김씨 측 변호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양성평등의 적용대상이 혼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되므로 부자가족, 모녀가족처럼 동성간의 결합인 1남1남, 1녀1녀도 가

대법원 “혼인은 남녀간 결합으로 성립” 헌법상 양성평등을 자의적으로 해석

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성결혼의 수용은 국제기준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른 변화의 흐름”이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 주장=김씨 측의 주장은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확립된 판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혼인 중에 있던 남성 성전환자가 성별 정정을 요구하자 “혼인이란 남녀간의 육체적·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우리 민법은 이성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성별 정정을 허용할 경우 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선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로하스)는 “대법원 판례에서 볼 수 있듯 대한민국 헌법상 혼인은 이성간에만 성립이 가능하다”면서 “동성결혼 합법화는 법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개정 등 국민적 합의

없이 절대 불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은 김씨의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등권 침해하고 동성결혼 인정하라는 역시 주장=김씨는 서울 서부지법에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인정하지 않고 부당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성 부부가 혼인의 평등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사회적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사회적 낙인·편견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계 요지다.

김씨 측은 '성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는다'(헌법 제11조) '성평등의 원칙'(제36조 제1항)을 앞세워 '성적지향에 기반한 차별은 헌법에서 금지된다' “혼인에 대한 성별 차별적인 해석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김씨 측은 “서로에게 가장 친밀하고 중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인정받지 못해 한 사람이 질병으로 치

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의료과정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소외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동성 커플이 상속 문제, 사회보장제도, 세제 혜택, 주택마련 등 법적·제도적으로 차별 받고 있으며, 사회적 낙인과 소수자 스트레스가 크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법을 지키지 않고 똑같은 권리를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그러나 김씨가 펼치는 차별 논리에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합법한 행위에 대해서 법이 보호하고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혼인의 권리는 이성간에만 부여된다. 따라서 가까운 친족과 결혼하는 근친혼(近親婚), 여러 명과 결혼하는 중혼(重婚), 동성결혼 등 불법 결혼에 대해서 혼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김씨는 동성결혼을 해놓고 평등권·인권침해, 차별금지를 당했다고 말하지만 법치주의 원칙에 따르면 김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자신의 감정이나 성향에 따라 근친혼 중혼 동성혼을 하고 싶다면 그 선택의 결과는 당연히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

조영길(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적법한 혼인·가족 관계에만 상속 및 가족 효과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면서 “법을 위반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과 동등한 혜택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동성애자들의 주장대로 동성결혼을 특별하게 우대한다면 근친혼, 일부다처(一夫多妻), 일처다부(一妻多夫) 결혼에도 동일한 논리로 결혼의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통일 기여가 한국교회 과제, 교단·교파 초월 기도운동을”

9일 서울광장 행사 앞두고 주요 교단 지도자 좌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통합·백석과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의 교단장들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대회의실에서 좌담회를 갖고 광복·분단 70년을 맞아 남북통일에 기여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당면과제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당면과제를 해결하려면 한국교회가 연합과 일치로 이뤄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과 인재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9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열리는 ‘광복 70년 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를 주최하는 교단 대표들이다.

예장통합 정영택 총회장은 “일제강점기 당시 기독교인의 수는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했지만 3·1운동을 이끄는 등 탁월한 리더십을 보였다”며 “그러나 광복 후 70년 간 한국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한 반면 리더십의 영향력은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 총회장은 “목회자들이 품격을 높이고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을 위한 장구를 일원화해 절대적 연합을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감 전용재 감독회장은 “한국교회에 양보와 배려의 덕목을 가진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며 “교회 안에 이념의 대립을 넘어 통 교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감독회장은 “현재 많은 젊은이들이 일제강점기 35년과 6·25전쟁에 대해 잘 모르고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어 현 상태만 보면 통일은 멀게만 느껴진다”며 “한국교회는 다음세대가 올바른 신앙관과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감은 서부연회를 중심으로 북한을 돕는 일을 20년 넘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단 차원에서 북한에 진료소 130곳을 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장백석 장종현 총회장은 “일제박해 속에서도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며 거룩함을 유지하던 한국교회는 해방 후 70년 간 분열을 거듭하며 영적으로 퇴보했다”고 지적했다. 장 총회장은 “권력욕과 이기심, 탐욕을 버리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자”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남북통일을 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장합동 박무용 부총회장은 “교회가 앞장서 기도하면서 국민에게 통일에 대한 열망을 확산시키자”며 “통일은 우리 민족의 문제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는 예장합동·통합·백석, 기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 7개 교단이 주최하고 구세군대한분영과 기독교한국루터회 예장고신·합신 등 60여 교단이 참여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등 주요 연합기관과 선교단체도 동참할 예정이다.

“임현수 목사 평양 회견은 강압에 의한 조작”

‘북 체제 전복 활동’ 인정에 대북 사업단체들 반발

북한에 억류된 임현수(60) 캐나다 큰빛교회 목사가 지난달 30일 평양에서 가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국내외 지원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북한 지원사업의 대부’로 알려진 임 목사가 자의로 밝혔다기보다는 북한 당국에 의해 강압적으로 조작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담대한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체제 전복의 동기를 가지고 북한 내에 해로운 종교국가를 세우기 위해 활동했다”고 말하는 등 북한 당국이 적용한 혐의를 인정했다.

주도홍 백석대 신학대학원(역사신학) 교수는 2일 “한마디로 착잡하다. 남북 분단의 비참함을 실감했다”며 “인도주의에 입각해 북한을 도왔던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북한이 임 목사를 이렇게 대한다는 것은 비정부가구의 활동을 막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지혜와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한국교회와 미국, 브라질 한인교회와 목사들의 이름도 열거됐다. 이름이 언급된 국내 교회 관계자는 “인도주의적 영역을 모두 체제 전복 혐의로 몰아간 것은 황당하다”며 “5·24조치 이후 국

내에서는 어떠한 지원도 하지 못하는 사이, 한국교회와 해외 동포들이 나서서 그 통로를 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 목사가 교회와 목회자 이름까지 밝힌 것은 대북 지원에 대한 북한의 경고로 볼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인도주의적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담대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하나님’이나 ‘십자가’, ‘교회’ ‘성경’ 등의 단어를 그대로 썼기 때문이다. 실제로 캐나다의 한 매체가 제공한 1분 50초짜리 동영상에서는 “(저는) 주민들에게 노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원시켜주신다는 사실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자갈도 일대 등 전국 각처에 기증하는 식량 마대에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그려놓고 교회 명칭도 쓰고 성경 구절을 써서 들여보내기도 했습니다...” 등의 기독교 용어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미국 한인교회 한 관계자는 “이러한 단어의 사용은 북한 입장에서 파격적일 수 있다”며 “임 목사를 배신자 취급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CTS기독교TV ‘동성애, STOP!’ 캠페인

CTS기독교TV는 동성애를 범

으로 보호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동성애, STOP!’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CTS는 “친동성애 단체 등이 소수자 인권을 내세우며 법으로 동성애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사회 안정과 통합을 위해 공익 캠페인을 전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CTS특별대담’을 편성한다. 5부작 대담은 동성애의 신학적, 사회·보건적, 교육적, 법률적, 문화적 측면 등을 주제로 다음 달 14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방송된다. 또 3부작 특집다큐멘터리 ‘동성애에 관한 불편한 진실’(가제)을 제작, 9월에 방영할 계획이다.

일 조직만 됐을 뿐 회의 날짜도 잡지 못했다. 총회와 총신대의 갈등이 다시 심화되면 추천위의 정상 가동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회와 총신대 간 갈등이 깊어지면 총신대 정상화 및 안정화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총신대에 대한 교육부의 낮은 평가가 바뀔 여지도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의 낮은 평가는 당장 정원·재정 감축, 학교 이미지 실추,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손실로 다가온다.

총회 내에는 어떻게든 이번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정서가 많다. 9월 법에 따르면 개방이사가 선임된 이후 교육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만 보선된 일반이사들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개방이사 추천권을 갖고 있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위원장 허활민 목사)는 지난 27

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교연은 “우리는 1000만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영성을 매도하고 모독한 당사자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그러나 만에 하나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회언론회도 ‘교회를 우습게 보듯 드러내는 인물을 비례대표로 선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준 또

1000만 한국 기독교인들을 대놓고 모욕한 것”이라며 “국정원의 해킹 의혹과 한국교회와 무수 연관이 있다는 것인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막말이자 저질스런 언어”라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김 의원은 한국교회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더 이상 국회의원의 자질과 자격이 없으므로 스스로 정계를 떠나야 한다”면서 “김 의원이 소속된 새정치민주연합도 한국교회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는 대외부문 강영선 목사(일산순복음영성교회 담임), 대내부문 소강석 목사(2017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 대표대회장, 새에덴교회 담임), 평신도부문 양인평 장로(기독교화해중재원 원장, 변호사),

김 목사와 소 목사는 그동안 나뉘어 있던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와 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를 하나로 만든 공로가 인정됐다. 2008년 한국

기독교화해중재원을 설립한 양 장로는 교단과 교회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중재하고 화해시킴으로써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상장 상패 메달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다음달 4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조예홀에서 열린다.

(기사제공: 한복총)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천지는 2012년 7월 CBS의 ‘신천지 아웃 캠페인’ 보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신천지 신도의 가정 파괴와 폭력, 살인 등에 대한 CBS의 보도는 대부분 사실 등을 바탕으로 해 신천지 측의 인권권을 침해한다

“천만 기독교인 모욕발언 김광진의원 정계 떠나라”

한교연·교회언론회 비판 성명·논평 발표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교회언론회는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헌안보고와 관련, “국가정보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민어 달라. 실시간 도청도 안 된다’며 믿어 달라고 한다. 지금 저 안이 거의 교회예요”라고 발언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교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기독교를 마치 미신 사교집단쯤으로 여기는 자가 어떻게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으며 민의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이런 인식을 부끄럽게 없이 당당히 드러내는 인물을 비례대표로 선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준 또

제10회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수상자 발표

강영선 목사, 소강석 목사, 양인평 장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구현하는 한국기독교복음단체인총연합(대표회장 김대성 목사) 교회일치위원회(위원장 안준배 목사)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장향희 목사)는 제10회로 맞이하는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수상자

를 선정하고 9월 4일(금) 오후3시 한국기독교교회관 조예홀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지난 2006년 제정된 이래 올해 10회째를 맞이하는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은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데 기여한 인사를 대상으로

CBS, 신천지와의 소송서 최종 승소

대법, 신천지 상고 기각

신천지에 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CBS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최종 패소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욱 대법관)는 신천지가 C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예장합동 총회-총신대, 재단이사 보선 놓고 갈등 재점화

백남선 총회장 “재단이사 부적절 인물 수용 불가” 김영우 총장 “절차 따라 선정 합의 정신 깬 적 없다”

정년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길자연 전 총신대 총장의 사퇴와 김영우 신임 총장 선임, 재단이사 보선 등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던 총신대 사태가 다시 꼬이고 있다. 총신대 재단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0일 총신대 양지캠퍼스에서 열린 전국기독교학생연례회(SCE) 연합수련회 개회예배에서는 당초 설교를 하기로 했던 백남선 예장합동 총회장의 고사로 김창수 총무가 대신

설교를 했다. 김영우 총신대 총장은 예정대로 격려사를 했지만 총회장과 총장이 한자리에 섬으로써 화해와 협력의 모습을 확인하고자 했던 이들에게 실망스런 모습이었다.

발단은 28일 열린 총신대 운영이사회였다. 이날 9명의 신임 재단이사들 보선했는데, 백 총회장은 재단이사 후보 발표와 동시에 자리를 떠났다. 지난 24일 총회결의시행위원회(위원장 김진웅 목사)가 총신대 측에 추천한 9명의 재단이사 후보 가운데 최종 후보에 포함된 사람이 2명뿐이었기 때문이다.

백 총회장은 29일 국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좋은 마음으로 화합하고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분들로 재단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고심 끝에 정치적 결단을 내렸는데 상황이 어렵게 됐다”며 “합의정신이 파기된 것과 닮았다”고 밝혔다. 또 “제99회 총회 결의에 따라 사임하기로 했던 재단이사들 가운데 다시 보선된 이들도 있다”며 “교육부가 총신대의 재단이사 선임 건 추진을 부류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 선임 및 개선, 정관 개정 등에 관하여 총회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로 한다’는 예장합동 총회와 총신대의 합의 내용은 총신대 측이 어겼기 때문에 더 이상 검토할 수 없다는 의미다. 총신대는 개방이사 선임, 이사회 정관 개정, 교육부 승인 등의 절차를 앞두고 있어 총회

의 협조가 필요하다.

반면 김 총장은 “합의정신을 깨트릴 마음도 없고 깨트릴 만한 일도 적적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합의서의 세 번째 항목을 언급하며 “운영이사회 관련 사항에는 일절 관여하 바 없다”면서 “재단이사 후보 선정은 재단이사추천위원회 등 절차에 따라 진행했기 때문에 총회 측 추천 인사가 원하는 만큼 선정되지 않았다고 합의정신 파기를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에 보선된 재단이사들은 사립학교법 상 일반이사에 해당한다. 법에 따르면 개방이사가 선임된 이후 교육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만 보선된 일반이사들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개방이사 추천권을 갖고 있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위원장 허활민 목사)는 지난 27

선교 편지

이스탄불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건강하시며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6-7월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나날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고등학교 졸업, 카자흐스탄의 이스쿨에서 가진 중앙아시아 아포스코(지역 전략회의)에 참석, 독일의 헤른후트에서 가진 제4권역 ARSM(전략회의)의 기획, 준비 및 실행, 북아프리카 튀니즈에서 열린 준 아포스코(전략회의)참석 그리고 연이어 한인 여름 수양회 참석, 중동지부 아포스코 참석 그리고 카르탈 교회의 여름 수양회 준비와 실행이었습니다. 이러한 연속되는 회의와 행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제 4권역 ARSM(권역전략회의)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많은 것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GP국제대표, GP연구개발원대표, 그리고 중앙아시아지부대표, 중동지부대표, 러시아지부대표들이 현대선교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모라비안선교가 시작된 독일의 헤른후트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헤른후트에 있는 Jessus Paryer House를 알게 되어 의미가 있고 조용하고 저렴한 곳에서 회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라비안들의 주님께 대한 헌신, 성령의 임재, 헌신적인 기도, 공동체성, 자비량 선교들을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장소를 이곳으로 정했었습니다. 서로 분배된 주제들을 가지고 준비해 와서 발표하고 그곳의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그곳의 스템들과 예배하고 그리고 스템 한 사람의 안내로 헤른후트를 돌아보며 모라비안 공동체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며 보람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더욱 감사했던 것은 계획에는 없었으나 체코의 프라하를 방문하여 후스의 순교 500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회의는 토요일부터 시작되었으나 주일에 Jesus prayer Hause에서 예배가 없어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고민하다가 헤른후트에서 체코의 수도 프라하까지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것을 알고 주일에 예배를 프라하의 한 한인교회에서 드리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후스의 순교 500주년을 기념하는 대대적인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살펴보면 서기 1400년대 초반에 영국의 윌리엄과 그의 영향을 받은 후스가 이미

헤가 감사했고 이 여정에 함께 동행 해주신 동역자님들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내가 주님께 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부끄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번 헤른후트의 방문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던 위대한 인물들-존 윌리엄스, 존 후스, 루터, 칼빈, 아홉 스페니, 프랑케, 진센도르프 그리고 웨슬레와 같은 위대한 신앙인들의 향취를 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헤른후트에서 산 진센도르프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가 주님께 헌신하게 된 계기를 읽으며 도전을 받습니다. 진센도르프가 수학여행을 하는 중 Domenica Feti의 Ecce Homo(저 사람을 보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시며 당신의 기쁨으로 채우시려는 것을 알고 바울 사도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앞에 있는 핏대를 향하여 질주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그토록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 번 작정해 봅니다.

아래에 몇 가지 기도제목을 적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사랑으로 기도하시며 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영원하고 진실한 사랑이 동역자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모든 총만함으로 인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아내가 사그사 자녀학교 행정 일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사역을 준비 차 한국 인천 송도에서 열리고 있는 학교 설립 및 경영에 관한 2주간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만남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무릎관절 및 갑상선 치료에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2) 첫째 아들 명주는 현직 빌켄트대학 국제관계학 1학년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둘째 아들은 지난 6월에 고등학교를 마치고 자기 형이 다니는 빌켄트 대학 환경디자인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명민이가 새로 시작하는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자녀들이 미래의 사역을 위하여 자신들을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3) 카르탈 교회는 여름을 맞아 많은 분들이 여행 중에 계시는 성도들을 여행 중에 지겨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름 방학을 맞아 주일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을 말씀 잘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1층을 전도와 교재 목적으로 새롭게 꾸미려고 합니다.

4) 토마스 신학교(예전의 이스탄불 성경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위한 일들이 순조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방학 중입니다. 9월 초에 가을학기가 시작됩니다. 준비된 학생들을 보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부터는 부녀들을 위한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5) 제가 AD(지역대표)로 섬기고 있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저들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안에서
김요셉&서헬렌, 명주, 명민 올림
이메일: shmmkim@gmail.com



종교개혁의 여명을 알렸고 그 후 100년 후 루터가 일어나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드셨습니다. 사실 헤른후트의 모라비안 공동체는 후스의 순교로 태어난 공동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저로서는 지나 4월 26일 터키 도착 2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터키에 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동행하시며 인도해주신 주님의 은

라라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 그림 밑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Ego pro te haec passus sum Tu vero quid fecisti pro me (나를 위하여 이것을 참았다. 지금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이 질문은 진센도르프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다. 결국 그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저에게도 이 질문이 뇌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세월을 어떻게 보낼까 곰곰히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 저의 삶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선교지에 왔고 선교지에서 20년을 살았지만 "과연 나는 그동안 주님을 위하여 살았는가?" 반성해봅니다. 이 질문 앞에 초라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되뇌이며 내 자신을 위로해 보지만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나를 정죄하시려는



선교 편지

하와이

알로하!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떠나오는 날부터 지금까지 기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선교를 통해 일본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이곳 하와이에 온지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도해주시 덕분에 미국비자가 나와서 이곳에 도착한 후 우선 한인 방송 GBC Hawaii를 시작하고 많은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 이곳 방송국이 세워져나갔습니다. 바쁘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6개월을 돌아볼 여유를 가지려고 늦은 감이 있지만 시간을 내서 기도편지를 씁니다.

이제 저희는 일본인을 위한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고 담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와이는 든든 대로 일본말을 해도 불편이 없을 정도로 일본인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2011년 지진 이후로 더 많이 일본인들이 이곳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수는 호놀룰루에 약 40만 가량이고 연중 800만에 달하는 관광객중 일본인 관광객 150만명 정도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이곳의 정치계나 경제계 등 주류사회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역시 일본인 교회의 수(10개 정도)나 교계는 많이 연약합니다. 일본인을 위한 크리스천방송은 아직 없습니다.

지난주는 이곳에서 제일 큰 일본인 교회를 참석하였습니다. 약 200명 정도 모여서 일본어로 예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민자 수에 비해서 연약한 일본인 교회의 협력을 통해 방송선교를 비롯하여 다양한 복음전도의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우선은 일본어 설교와 찬양, 생명의 삶 일본어 큐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본어 프로그램이 잘 세워져 나가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인들과의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주시시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공로가 이 땅의 일본인들에게 임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일본인 교회가 든든히 서고, 하와이를 찾는 일본인 여행자들이 복음을 듣고 모국으로 돌아가 또 일본의 교회가 부흥하는 복음의 배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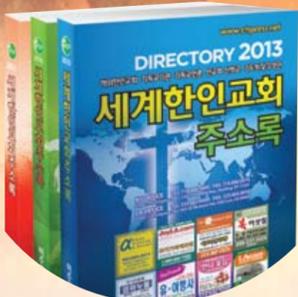
마지막 때에 귀한 만남을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부족하지만 부르심에 순종해 가는 길에 뜨거운 기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지영, 김성희 선교사 드림
이메일: kshe2@hammail.net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2016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리스팅 및 광고 9월말 마감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이 매년 발행하는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이 2016년도 판 출간을 앞두고 리스팅과 광고디자인 작업 중에 있다. "2016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은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미주 전 지역 한인교회와 한국을 제외한 해외 한인교회의 주소가 수록되어 있다. 총 75개국에서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인교회들과 미국 50개 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및 담임목사의 연락처를 게재한다. 또 교회가 속한 교단과 웹사이트 주소도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 선교단체 및 신학교 리스팅도 포함된다. 명실공히 전 세계 해외 한인교회와 한인교계의 주소를 담고 있는 본 주소록은 각 교회와 신학교, 기독교단체들의 광고도 게재하고 있다. 이번 "2016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리스팅 편집마감은 9월말이며 광고마감은 10월초까지 가능하다. 한인교회와 기독교단체, 신학교들의 리스팅을 9월말까지 본사로 보내면 된다.

다음

- (1) 미국(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록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5년 9월 30일 / 광고 접수마감 2015년 9월 30일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
E-mail: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 (323) 665-0009, Fax. (323) 665-0046
Email: la@chpress.net

회비무료, 점심제공

하나님의 구원계획 세미나

- 1. 일시: 2015년 7월 14일(화) 오전 10:00~ 오후 4:00
장소: 조지아 서라벌 레스토랑 (770)497-1155
3040 Steve Reynolds Blvd. Duluth GA 30096
- 2. 일시: 2015년 8월 4일(화) 오후 2:30~ 오후 8:00
장소: 달라스 수라레스토랑 (972)243-5656
2240 Royal Ln. #106 Dallas, TX 75229
- 3. 일시: 2015년 8월 6일(목) 오전 11:00~ 오후 5:00
장소: 휴스턴 서울가든 레스토랑 (713)935-9696
9446 Long Point Rd. Houston, TX 77055



강사: 라홍채 목사
(뉴욕제자들교회)

구역, 신약과 애먼사인 대니엘서 게시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 눈에 알아볼수있는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세미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P.O.Box 610178 Bayside, NY 11361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사모칼럼 //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12. 사모의 침실 가꾸기(2)

부부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은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한 방편으로 성을 만드셨습니다. 자손번식을 위함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서로 다른 남남이 결혼식을 한 이후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성육을 만드셨고 이 육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배우자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성이 더러운 죄악의 산물처럼 남용한 결과 지구촌은 잘못된 성으로 더러워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만듦 법칙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는 부부제도를 만드신 법칙대로만 하면 됩니다.

요즈음 결혼을 앞둔 청년들을 보면 의외로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채 결혼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애

못해서 등등 온갖 이유를 찾다가 지쳐버립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 성을 묵회에 잘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건전한 묵회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정작 개선하려 할 때는 잘 안됩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하고 철야까지 해도 묵회가 될까 말까하는데 아내와 하하덕거리며 즐길 것을 상상만 하여도 양심에 허락이 없습니다. 사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라도 교회에 시험이 있거나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 운운할라치면 누가 뭐라 하기 전에 자신을 질책해오기 마련입니다. 요즘 젊은 목회자들 중에 이런 부부가 있으리라고는 상상이 안되겠지만 실제로 우리를 주변에 있기에 몹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날로 어려워져가는 목회나 사역에 침실 가꾸기는 점점 더 중요성이 가해지지만 합니다.

우선,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고 하나님이 찬성하였음을 재인식해야 합니다. 그런가하면 성을 남용하여 목의 빛을 경우 점점 더 심각해져서 결국은 묵회를 접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모의 침실 가꾸기 시간은 빼놓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어느 단체 사모세미나에서도 나이를 불문하고 성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되어가고 있습니다. 몇 년전 만해도 쉬쉬해오던 사모의 성문제가 이제는 아주 노골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몇년전 해외 어느 지역에서 사모세미나를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침실 가꾸기를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강의를 마치고 나서 그룹별 토의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나이 별로 그룹을 나누어 합니다. 아주 진지하고 흥미 있고 관심 있는 문제들이 노골화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사모님의 질문입니다. 목사님인 남편이 불의의 사고

부부제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 사랑과 존중으로 잘 알아야 '남편들이여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라' 베드로의 말 명심

석하게도 현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겪는 심한 스트레스와 문화의 위기로 인해 정상적인 성욕을 잃어버리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첫날밤의 단꿈이 모두 깨어진 채 신선 아닌 성혼의 생활로 들어갑니다.

무지의 성, 또는 잘못 알고 있는 성지식으로 인해 결국 신혼여행 중에 각종의 사건이 벌어지는 안타까움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온갖 미디어를 통해 의례히 잘 알고 있으려니 생각하는 성지식이 이렇게 결혼의 단꿈을 무너뜨리게 하리라고는 상상 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 청년들이라 하면 적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올바른 성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로서 성도들에게 크리스천의 올바른 성교육입니다. 그 이유로는 자신의 부부생활이 올바른 성지식을 갖지 못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는 알고 있는 지식이라 할지라도 마음 놓고 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전문 기관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부부가 건전한 성생활로 행복한 부부생활을 하는 것은 또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외로 성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인식하는 목회자나 혹은 사모님들이 있는가 하면 알고 있지만 스스로 제어하며 흥미를 갖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주를 위해 오로지 충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목회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도 이런 목회자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의 아내인 사모는 어떤 심정일까요? 다행스럽게도 수녀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여성이 사모가 되었기에 의례히 목회자의 생활은 이것이 정상인줄 알고 아무 문제없이 묵회를 잘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려 이런 생활이 목회자로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회생활은 몹시 피곤합니다. 힘이 듭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목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어려운 난관이 앞에 오게 되면 쉽게 지쳐 버린다고 사모들은 호소해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다른데 있다고 생각하지요. 더 기도하지 못해서, 더 전도하지 못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남편이 설교를 잘하지

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후유증으로 성불구자가 되었습니까. 사모님은 오래 동안 마음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성욕을 자제하기로 굳게 마음먹고 나름대로 애를 써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어느 날 남편이 성을 요구해오는 것입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사모는 어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서 당황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지 고민을 털어 놓았습니다. 사모는 이미 나이가 들어 성욕이 없어져 가는 상황이기도 남편의 욕구를 들어주기에는 어려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한편 남편의 이런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고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논제를 놓고 참석한 사모들은 각각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의외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모님들을 섬기고 돌아오면서 해외 선교를 하는 사모들에게 있는 성의 문제는 어쩌면 더 심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한 성생활을 위해서는 성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이제는 학문의 일종으로 다루며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성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한 신체구조와 성욕의 상태를 계속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나이들어 가면서 변화되어가는 성욕과 신체적 조건 또는 남편의 상태 중 한 가지를 알고 나서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거나 혹은 친구의 남편의 상태를 자신의 남편과 같으리라 추측하고 적당히 처리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남편의 생리구조나 욕구의 정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계속적으로 섬세하게 살피며 변화의 과정까지도 관심을 갖고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선 사랑의 바탕위에 서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 없는 존경이 있을 수 없고 존중 없는 사랑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어떤 생리구조나 욕구의 특징을 사랑과 존중의 눈으로 살펴 나갈 때 성숙한 부부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남편들이여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월 은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니라(삼상11:1-2)

본문은 사울이 제비뽑기를 마치고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있는데 압몬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을 모아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면 굴욕과 수치만이 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압몬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인 길르앗 아베스에 쳐들어와서 진을 쳤습니다. 압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딸 사이에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의 후예들로 신23장에 보면 우상숭배가 극심한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총회에 들 어올 수 없는 민족으로 명시한 나라입니다. 지금 재침공을 시도한 이 순간 아베스의 모든 사람이 압몬에게 나아가 "우리와 언약하자"며 압몬을 섬기겠다고 무릎을 꿇습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면 남는 것은 굴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화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삼상11:1-4)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그 때마다 우리는 "아!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하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 남는 것은 모욕과 수치만 당할 뿐입니다. 지금 압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압몬에게 손을 드는 것이 나를 것 같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항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압몬 족속

에게 항복을 하니가 따스하게 맞아주시는 커녕 오히려 눈을 다 빼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쟁에 나가면 왼쪽 눈은 방패로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 보고 싸웠는데 오른쪽 눈을 빼내겠다는 것은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는 것보다 더한 수치와 모욕입니다. 단호하게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항상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삼상11:5-7)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승리와 축복의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신세를 한탄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앙을 타협하다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압몬 족속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해서 이 속에서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소 두 마리를 잡아서 각을 따서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보내면서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소의 각을 뜯 것은 누구든지 압몬과 싸우려 나오지 않으면 소의 각을 뜯듯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때 백성들에게 여호와와 두려움이 임함으로 33만명이 마치 한사람 같이 모였습니다. 위기가 왔지만 이것이 오히려 큰 승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매(삼상11:5-11)

성령의 사람은 위기가 올 때 어떠한 위험이 닥쳐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소신껏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위기를 맞아 죽을 것 같아도 오히려 늘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주목할 것 두 가지 중 "사울과 사무엘을 좇으라"(7)는 것은 군대를 소집하는 것이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소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

으로 신뢰하는 사무엘이 이 전투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와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진히 움직이셔서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하시기 위함을 말합니다. 어려운 순간이 오고 힘든 순간이 올 때 성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히려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바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금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삼상11:10-13)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교훈은 성도는 순간순간 항상 그리고 끝까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과 함께 새벽에 기습작전을 펴서 압몬 족속을 한순간에 다 물리쳤습니다. 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또 아부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울을 우습게 봤느냐는 것입니다. 사울을 우습게 본 사람들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겼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백성들은 그 공로를 사울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울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울이 교만했다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으니까 정말로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던 사람을 잡아서 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겸손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을지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토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삼상11:14-15)

본문은 삼상11장의 결론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위험한 순간이 닥칠 때 큰일 났다고 하지만 오히려 감사할 것은 위험한 순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승리해놓고 잘 돼놓고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살려주셨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때 영원

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울 옆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신실한 주의 종이 옆에 있으니까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도 겸손하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화목해질 때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겸손하게 나아가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7:00 주일예배: 오전 9:00 Tel: (031)877-3339, Fax: (031)877-8382 (주)110-831-1111 (주)110-831-1111 (주)110-831-1111 서울시 중랑구 동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흥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2-8670(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상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0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침례인을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 오전 5:00 새벽예배: 오전 6:00 Tel: (82)2-2648-3181~3, (82)2-2646-3184 서울시 강동구 목동2동 520 (10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02)2-958-9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옥동 22-4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경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82)32-588-0191, Fax: (82)32-58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랑구 신사동 137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842,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6: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72 (291동) 신길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86-6579, 새벽(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양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인구 죽전동 302-67 (140-031)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예배4부: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창신구 월영로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유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3: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송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493-1(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중랑구 성북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 (2)



엄예선 박사
(플러신대학원 가정상담 및 한국가족학 교수)

8)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목회자들은 누구에게나 용서를 실천한다.

제자도의 삶을 사는 목회자는 원수에게도 크디큰 용서와 자비를 베풀 줄 안다. 용서는 자아의 희생과(Gentry, 1999) 분노에 반하는 사랑을 베풀음을 의미한다(Labberton, 2014).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원수 갚음과 분노의 사이클을 깨고자 하는 의지이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는 결단이다. 나아가서 설사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더라도 여전히 상대방을 축복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위이다.

9)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며, 남에게 고통을 주는 잘못을 했을 때는 문제를 부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잘못을 즉시 인정한다. Greg Krech(2001)은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의 근원이 되었던 사건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 자아를 알 수도 없고 참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주변에서 목회자가 자신의 문제를 덮으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오히려 처음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와 상처를 낳아 온 교회를 파괴하는 경우를 때때로 목격한다.

10)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언제든 돈 문제, 이성문제, 세습 문제, 학위문제 등의 윤리적인 문제에 빠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동시에 투명함 삶의 스타일과 목회구조를 만들어 나간다.

예를 들면 신국원(2012: 63)은 자신의 어린 시절 목사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그 목사님은 성도들이 간혹 가져오는 선물을 작은 것 하나라도 집안에 들이신 적이 없다. 보관하고 있다

가 필요가 보이는 곳에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해마다 예산을 정하는 공동의회 때마다 "나는 교회에서 정하는 대로 살겠다"고 하셨다. 그는 빌4:12, 13에서와 같이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다." 목회자들이 잘 빠지기 쉬운 또 하나의 문제가 이성문제일 것이다. 목회자는 자신의 직무를 이행

목회자의 소명의식은 시험과 유혹, 고난 극복할 힘 갖게 해 목회자는 성도에게 긍휼, 희생, 포기 않는 사랑, 삶에 개입

하기 위하여 수시로 어디서나 여성도들을 홀로 만날 수 있고, 많은 여성도들이 누구보다도 믿는 대상이므로, 어떤 직업 종사자들보다도 이성문제에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목회자 편에서 여성도에 대한 이성적인 감정이 생길 경우에는 자신의 비윤리적인 행동들이 가져올 결과들을 미리 구체적으로 상상을 필요로 있다. 동시에 초기에 멘토나 지지집단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다.

II. 소명의식

소명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각자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부르실 때 두 가지 종류의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 두 가지가 다 소명인데 제1 소명은 "우리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Labberton, 2014:26) 즉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며,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순종이다. 두 번째 소명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순종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한 부분을 우리 각자가 담당함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이 두 번째 소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이 두 번째

소명을 직장과 가정에서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거부하면 우리는 자기주장을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이탈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화"(고전9:16) 곧 멸망을 받는 것이다. 이점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전 9:16)고 표현한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소명 즉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의 사도직을 그가 절대로 거스릴 수 없는 그의 숙명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명을 거스리면 그것은 곧 구원의 상실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는 로마서 1:14에서 자신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대상들에게 자신이 빛진 자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 덕분에 자신이 구원받았기 때문이었다(김세운, 2003). 그러므로 바울의 빛진 자 의식은 빛진 대상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침을 가능하게 했으며 성도들을 자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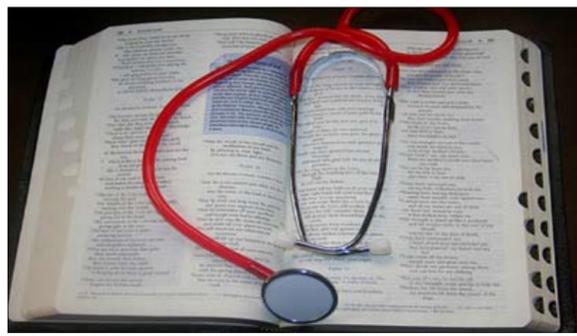
해택을 꾀아보니 360가지나 되었다고 말하는 목회자가 있었다.

소명의식은 목회자들이 목회현장에서 부딪치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 반면에 목회자가 소명감을 잃을 때 단순한 직업인이 되고, 목회의 방향과 의미와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목회가 고역이 되고 자연히 교회는 병들게 된다.

III. 양들을 향한 목자의 사랑

목회자(pastor)라는 단어의 라틴어 어원은 목자를 의미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로 흔히 표현된다. 목자의 역할은 네 가지다. 첫째,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사23:3) 둘째, 자신이 처한 위험을 무릅쓰고 보호해주는 역할(사23:4) 셋째, 약하고 상처 입은 양들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역할(겔34:4), 넷째, 먹이고 쉬게 해주는 역할(사40:11, 요21:15)이다(Rodney J. 1990).

이러한 목자의 역할들은 양들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역할들이다. 목자의 양들을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구원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중요한 존재들로 보게 했다. 그는 성도들이 자기를 추천해주는 추천편지(고후3:1이하)라고 말한다. 그는 그들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하면서 그들이 예수 재림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살전4:3)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고자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살전 4:10). 동시에 그는 사역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힘을 받았다(살전 3:6-10).

목사는 바울과 같은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지, 목회자 자신이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바라보지 않는다(장경철, 2012)(대형교회 목사로서 자신이 누렸던

1) 양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랑이다. 예수님은 그 당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보시고 측은히 여기셨다.

2)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스스로 희생양이 되는 자기희생적 사랑이다. 요한복음 10:15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과 계시록 7:17(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희생적 사랑을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랑과 혼동하면 안된다.

3) 어떤 양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눅15:4). 선한 목자에게는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자신의 목숨을 바칠 만큼 귀중한 존재이므로 어떤 양도 포기할 수 없다. 이점은 목회자는 모든 성도들을 품고 특히 "잊혀진 자들과 보이지 않는 이

시(詩)로 읽는 성경(聖經) - 모세오경



志常 김길홍 목사
(시인/소설가)

구속(救贖)의 필요성(The Israelites Oppressed) (출애굽기 1:1-22)

이스라엘 혈속 칠십인 애굽 땅에 번성하고 창대하니 무성한 감람나무라 요셉 모르는 바로 왕이 두려워 말살 정책 펴니 한 민족의 비극일세

국고 성 축성 간역자로 이스라엘 백성 무거운 짐 지워 살과 뼈 말리고 산파시켜 "신생아 남자아이 낳으면 죽이라" 명하니 새 말리는 정책이라

이들 슬픔 하늘 가리고 온 세상 먹구름이니 그 원한 하늘에 사무쳐 자기 백성 사랑하시는 아훼 마음 무거워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 서야 할 땅 그곳 일세

일어나 빛을 발할 백성 부르시니 일어나라!
"땅들이 진동하고 산들이 크게 외치며 바다야 이 말을 전할 지이다"

아훼 백성 이스라엘!
약속의 땅 새 하늘 보인다.

잠자는 자 눈 비비고 누운 자 일어나며 슬퍼하는 자 기뻐할지니 아훼의 나팔 소리 들려온다. 해방의 종소리 크게 울린다

환희의 노래 부르자
가고 파, 가고 파, 가고 파, 그곳!
가고 파, 그곳으로 나 어서 가고 파라
아훼 나를 곧 오라 부르신다
저 나팔소리 나는 들어 나 어서 가고 파라!

들과 누구도 원치 않는 사람들과 비천한 사람들"(Labberton, 2014: 44)을 찾아서 그들에게 선을 행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Labberton, 2014). 목회자가 모든 성도들을 품을 수 있기 위해서는 넓은 아량과 편애하지 않음과 이해심과 겸손과 신실성과 인간관계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4) 적극적으로 양들의 삶에 개입하는 사랑이다.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치료하고 먹이고 쉬게 하려면 양들의 삶에 깊이 개입해야 하듯이 목사는 적극적으로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는 사랑을 해야 한다.

▲ 간접적 외상 스트레스

목회자가 성도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 간접적 외상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쉽다.

Victor Frankl의 '빛을 발하는 모든 물체는 화상을 견뎌야만 한다'(That which is to give light

must endure burning)는 이 말은 목회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다. 목회자들이 수시로 성도들의 다양한 삶의 고통들에 개입할 때 성도들의 스트레스가 그대로 전달되어 그들이 느끼는 똑 같은 불안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간접적 외상 스트레스, vicarious traumatization"(McCann & Pearlman, 1990; Pearlman & Saakvitne, 1995)라고 부른다.

"간접적 외상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이성적 능력, 관계성 기술, 충동 조절능력, 공감능력 등을 상실하게 된다(Gentry, 1999).

흔히 위기 속 성도들의 삶에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목회자들이 바로 이 문제로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선한 목자가 되고자 하는 목회자들은 간접적 외상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다.

이메일: yeasunkim@gmail.com
(계속)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신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발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2015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

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학			
부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학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제출서류 ◇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 1 원 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5년 9월 4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5년 9월 5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 강 부흥회 : 2015년 9월 8일(화) - 10일(목)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신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